

2024년 봄호 vol.174

2024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한국 피아노 음악의 대모 장혜원 동창
이대 여자축구팀 창단 멤버에서 교수로, 안근희 동창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6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돕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6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4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7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4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8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이화역사관의 봄(2022)

편집위원

-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 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
- 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 최정은(커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4년 4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4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내가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 03 2024년도 정기총회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결산하는 자리,
2024년 펼쳐질 각종 사업 보고
- 05 2024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따사로운 봄과 함께 찾아온
신입 동창을 환영하고 격려하다
- 07 총동창회장 인사말
이화 동창의 삶이 하나님의 자람이 되고
서로살림의 보람을 나눔으로 잇대어 갑시다
- 08 2024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윤금진 사범대학 동창회장
- 09 2024년도 신입 동창 답사
최수빈 신입 동창
- 10 우리는 이화 가족
'이화의 사계' 사진전 갖는 황규호 교육학과 명예교수
- 14 이화의 기도처 순례 / 자연과학대학 기도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 16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 피아노 음악의 대모 장혜원 동창
- 20 동창 기고
과학 전문인 선교단체 Lumynt를 시작한 이해정 동창
- 22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이대 여자축구팀 창단 멤버에서 교수로, 안근희 동창
- 26 선교지에서 온 편지
진로소 활동이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 28 총동창회 소식
신입 동창에게 동창 수첩 배포 외
- 31 선교부 소식
'2024 단과 및 단대(원) 선교부장 간담회'를 다녀와서
- 32 모교 소식
평화 구축을 위한 10년의 여정
'2023 윤후정 통일포럼' 개최 외
- 40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 44 과(학부) 소식 중어중문학과 외
- 51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 62 동창이 펴낸 새 책 『나이 드는 데도 예의가 필요하다』 외
- 63 동창 근황 고(故) 손명순 동창 외



03



05



10



14



16



22



32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7)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벗'이라 불러 주시고 얼룩진 손 따뜻이 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사랑'이라 불러 주시고 차가운 몸 포근히 품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도 당신의 '말'이라 불러 주시고 지친 삶 세밀히 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도무지 틈을 것 같지 않던 메마른 가지 사이사이 순의 움트는 속삭임들과
얼어붙어 녹지 않을 것 같던 땅의 깨어나는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빛이 어두움을 숨기지 못하듯이 드리나는 생명의 신비에 붙들리어
그 모든 기묘함과 역동은 오직 당신께로부터임을 새삼 아뢰며
하늘을 펴시고 땅을 내시는 살림의 은택으로 수그리진 민낯 감히 들고
나누는 이로 섬기는 이로 돌보는 이로 겸허히 비우고 또 채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흘리시고 쏟아 주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을 돌이켜 어그러짐이 없이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거짓된 뜻을 멀리하여 험클어짐이 없이 바르게 하시며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다듬어 피차 삼켜 소멸함이 없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마주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당신의 살피시는 눈길을 좇아
만물의 존엄을 힘써 지켜 영원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며 만져 주시면서
매 찰나 우리를 새로이 빚어 가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결산하는 자리, 2024년 펼쳐질 각종 사업 보고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3월 9일(토) 오전 11시 30분 동창회관 1층 Main Hall(이화·삼성교육문화관 103호)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이경숙(영문 70)·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 고문,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이정화(독문 74) 감사, 임원들, 모교 관계자와 25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김경령(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개회사, 전년도 회의록 낭독,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 2023 회계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24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모교 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정기총회는 처음으로 동창회관 Main Hall에서 치러졌는데 임원들은 일찍부터 나와 행사 준비를 했고, 참석한 동창들은 식전에 2023년에 진행된 총동창회의 사업 활동 영상을 보며 지난 1년을 되짚어 보는 한편, 2024년 한 해 총동창회의 사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감 속에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마중물로서 총동창회의 역할을 다할 것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화 동창 선후배들이 신입 동창을 환영하고 총회의 자리를 빛내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어 감사하다”고 하며 “팬데믹이 지나고 2023년 모든 행사를 대면으



인사말을 하는 이명경 총동창회장

로 치르는데 한마음으로 손 모아 주셔서 한 해를 잘 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경 회장은 "또 하나의 열매로 네덜란드 지회와 일리노이 지회가 새롭게 인준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모교 창립 138주년과 총동창회 설립 116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연례행사와 함께 새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동창회는 5월 21일(화)부터 31일(금)까지 모교 ECC 대산갤러리에서, 《이화동창》 표지에 이화 캠퍼스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제공한 모교 황규호(사범대 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총동창회에 기증한 사진 작품으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리며 "사랑하는 동창들이 와서 이화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고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동창의 대소사를 총동창회가 비우고 채워가면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비추고 가리키는 그 길을 동창들이 함께 걸어가 주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맺었다.

전년도 결산안 및 2024년도 사업계획안 통과

다음으로 202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백기엽(특교 00) 서기가 낭독하였고, 김은경(특교 87) 동

창의 동의와 신난식(성악 73) 동창의 재청으로 가결되었다.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에서 이정화(독문 74) 감사는 "총동창회 회칙 제9조 3항에 의거,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결산서와 대차대조표 및 관계 장부와 제 증빙서류 등을 감사한 바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했다"고 보고를 마쳤다.

2023년도 사업보고는 김경령 총무,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이여훈(경영 05) 회계가 총회 시작 전 스크린에 띄운 총동창회의 2023년 활동 영상과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하였고,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은 김곡미(생미 87) 동창의 동의와 최은영(물리 87) 동창의 재청으로 가결되었다. 이어 2024년도 사업계획을 김경령 총무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이여훈 회계가 자료를 참조하며 보고하였고, 임복희(행정 93) 동창의 동의와 태혜신(무용 89) 동창의 재청으로 가결되었다.

모교 미래 캠퍼스 건립 계획 설명

다음으로 모교 김은미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했다. 지난 2월 한국 최초로 대한민국 초대 유엔여성기구(UN Women) 친선대사로 임명돼 여성 역량 강화와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연구하고 자문을 수행하게 되는 김은미 총장은 이날 해외출장으로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김 총장은 지속 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 혁신 플랫폼> 성과를 설명한

각종 결산안, 예산안에 대해 동의와 재청으로 인준을 한 이화 동창들



후 첨단 미래 캠퍼스 건립 계획을 설명했다. “생활 환경관은 이화의 서쪽 영역을 아우르는 웨스트 캠퍼스로서 1만 9,000평에 4개 단과대학을 포함한 혁신적인 캠퍼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며 현재 인허가 등 제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이화 최초의 도서관인 헬렌관은 건축 당시 역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을 담은 첨단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하며 현재 중앙도서관과 내부에서 세 개 층이 연결되어 중앙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도에도 세계 최고의 글로벌 대학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힌 김은미 총장은 “이러한 여정에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는 동창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교가 제창을 하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주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이화의 사계절 풍경을 담은 영상에 맞춰 교가를 부른 후,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폐회를 선언하였다. 참석한 동창들은 기념 촬영을 마치고, 모교 대외협력처에서 준비한 기념품 우산과 선교부의 <2024년 기도수첩>,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샌드위치 도시락을 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2024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따사로운 봄과 함께 찾아온 신입 동창을 환영하고 격려하다

정기총회에 앞서 2024년도 전기 졸업생 약 3,500여 명(학부 2,185명, 대학원 1,276명)이 총동창회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신입 동창 환영회가 3월 9일(토) 오전 11시, 동창회관 1층 Main Hall에서 열렸다.

동창들을 환영하는 총동창회 임원진



강승애(체육 95) 회우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회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르며 시작하였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신입 동창의 앞날을 축복하고 이 사회에 요긴하게 쓰임 받게 해주시길” 청하였다.

선배들이 빛낸 이화 정신을 나누고 계승할 것

이어 윤금진(영교 80) 사범대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윤금진 회장은 신입 동창에게 “이화동산



환영사와 답사를 하는 윤금진 사범대 회장과 최수빈 신입 동창, 축하로 신입 동창을 환영한 피아노의 박성희·소프라노 정자영 동창(왼쪽부터)

에서 펼친 열정, 도전, 성취에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이화에서 받는 교육의 저력과 이화 동창의 지원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미래를 훌륭하게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26만 이화 동창들은 기꺼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최수빈(약학 24) 신입 동창은 답사를 통해 "이화에서 보낸 4년,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며 "이화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화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개강이 늦어지며 힘들었던 새내기 시절, 만나지 못해도 함께 공부하고 웃고 울며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다"며 "선배님들이 빛낸 이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화를 빛내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따듯한 박수를 받았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정든 이화를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입 동창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축하하였다.

신입 동창과 재학생 50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다음으로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신입 동창 24명과 재학생 26명 등 5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학원에 진학한 24명의 신입 동창들이 참석하였고, 대표로 한소정(생명 24, 대학원 심리학과 재학) 동창이 단상 위로 올라와 이명경 총동창회장으로 부터 장학증서를 받았다.

새롭게 입회하는 동창을 축하하는 이 자리, 소프라노 정자영(성악 93) 동창이 박성희(피아노 93) 동창의 피아노 반주로 <첫사랑>(김효근 곡)과 <세상을 사는 지혜>(이울구 곡) 두 곡을 축하로 들려주었다. 신입 동창들에게 오늘 만남이 첫사랑같이 기억되길 바라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감동적인 축하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신입 동창 환영회를 마무리했다.

글·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신입 동창에게 기념품과 장학금을 수여한 이명경 총동창회장. 장학금 수여자인 신입 동창과 재학생에게 박수로 격려하는 참석자들(왼쪽부터)



이화 동창의 삶이 하나님의 자량이 되고 서로살림의 보람을 나눔으로 잇대어 갑시다



이명경(무용 77, 제19대 총동창회장)

안녕하십니까!

제19대 총동창회장 이명경입니다.

여러모로 분주하신 때에, 사랑하는 이화 동창 선
후배님께서 소중한 걸음 해주시고 새벽이슬 같은
신입 동창들을 환영하고 축하해 주시면서 총회의
자리를 빛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총회 이후에 제19대 총동창회를 시작한 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새해를 지나고 또 꽃피는 3월의 문
턱도 훌쩍 넘어 2024년 총회에서 사랑하는 이화 동
창 선후배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팬데믹의 비상사태를 지나고 2023년에는, 연례
행사들을 대면으로 준비하다 보니 모든 행사가 다
소 생소해서 흡족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럼에도,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각 학과 동창회장님
들을 비롯한 이화 동창 선후배님께서 한마음으로
손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순전히 한 해를 갈
무리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동창회의 또 하나의 열매로서
네덜란드 지회와 일리노이 지회가 새로이 인준되
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2024년은 모교 '이화'가 138주년이 되고 총동창
회가 11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팬데믹에 이은 엔
데믹 상황과 환경 위기 등 여러모로 변화해 가는

세태 속에서, 모교 '이화'나 총동창회도 적극적으로
서로 연계하고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에
걸맞은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
해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청년 시절 이화동
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녹인 배움을 삶 가운
데 공유하고 있는 이화 동창 선후배님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피차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아 실천
적 섬김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서로살림의 보람을
나눔으로 잇대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늘 해 오던 연례행사 외에 소소하지만
새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
라, 《이화동창》 회보 표지에 실을 수 있도록 이화
동산 곳곳이 담긴 사진 작품을 아낌없이 후원해 주
던 모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황규호 명예교수님
이 올해에 퇴임하시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
회의 내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전 작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화)부터 31일(금)까지
ECC 내에 자리하고 있는 '대산갤러리'에서 작은 사
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창 선후배님들과 가
족이 오셔서, 아름다운 이화동산을 눈에 담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감동이 있는 작품은 구매도 해주
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크고 작은 행사에, 총동창회가 비우고
또 채워가는 거짓 없이 깨끗한 마중물로서의 역할

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성서 아가서의 한 구절처럼,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랑하는 이화 동창 선후배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자량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가리키시는 그 길을 향해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개척 정신을 기대합니다



윤금진(영교 80, 사범대학 동창회장)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동창회장 윤금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경 총동창회장님과 많은 선후배 동창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새로이 총동창회에 입회하는 신입 동창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신입 동창 여러분!

이제 이화 교정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화동산에서 펼친 열정, 도전, 성취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의 앞길에 꽃길만 전개되기를 바라지만, 또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취감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좌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화에서 받은 교육의 저력과 이화 동창의 지원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능히 미래를 훌륭하게 개척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화는 처음 단 한 명의 여학생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과 헌신,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교육해 왔습니다. 138년이 지난 지금은 26만여 졸업생을 배출한 유수의 대학교로 성장하였고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진정한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학교였지만, 이제 우리 동창들은 세계 각지에서 학교를 짓고 교육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26만여 우리 동창들은 기꺼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며 여러분도 훌륭하고 멋진 사회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또한 총동창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화인이 되겠습니다



최수빈(약학 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최수빈입니다.

먼저 신입 동창들을 대표하여, 존경하는 이화의 선배님들께 답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입 동창이지만, 저는 선배님과 신입 동창 여러분에게서 끈끈한 이화의 정을 느낍니다.

이화에서 보낸 4년은 저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음으로써 저의 시야를 넓히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의 학습은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팀원과의 협업, 더 나아가 자유롭고 다양한 학문적 탐구는 비로소 저에게 귀중한 경험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화에서 얻은 풍부한 산물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화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화의 많은 친구들과 교수님, 그리고 선배님들이 계셔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발로 개강이 늦어진

새내기 시절에,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였던 그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왔던 당시를 기억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에서도 함께 공부하고 웃고 울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화의 품에서 벗어나 사회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사실 사회로의 첫 도약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이화에서의 추억, 땀, 노력을 자양분으로 하여 두려움 이상의 설렘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로 당당히 걸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배님들께서 빛낸 이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저희도 이화를 빛내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로의 첫발을 뗀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신입 동창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모든 이화인의 건강과 평화를 기도하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주제 : 거듭남(요한복음3:5)

2024년 5월 14일(화) 오후 1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우리는 이화 가족 /

‘이화의 사계’ 사진전 갖는 황규호 교육학과 명예교수

“이화의 가장 아름다운 표정과 최고의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20여 년 동안 이화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아니 살살이 살피며 이화의 숨은 매력을 프레임에 담아온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올 2월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정년 퇴임한 황규호 명예교수(이하 교수로 통일)다.

황 교수의 훌륭한 작품들은 《이화동창》 2019년 여름호(155호)부터 현재까지 총 20호에 걸쳐 《이화동창》의 표지를 장식해 왔다. 사계절을 품은 이화의 자태는 그의 손길이 담긴 사진 속에서 때로는 색색의 고운 옷을 차려입은 봄치녀로, 때로는 노랗고 붉게 물든 고즈넉한 단풍 명소로, 때로는 눈꽃이 만발한 환상적인 설경으로 끝 모를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총동창회 임원진과 《이화동창》 편집위원들은 매호 편집회의 때마다 숨 막히게 아름다운 여러 장의 표지 후보들 가운데 단 한 장을 고르느라 늘 행복한 고민에 빠져야 했다.

이화의 혼과 숨결이 느껴지는 사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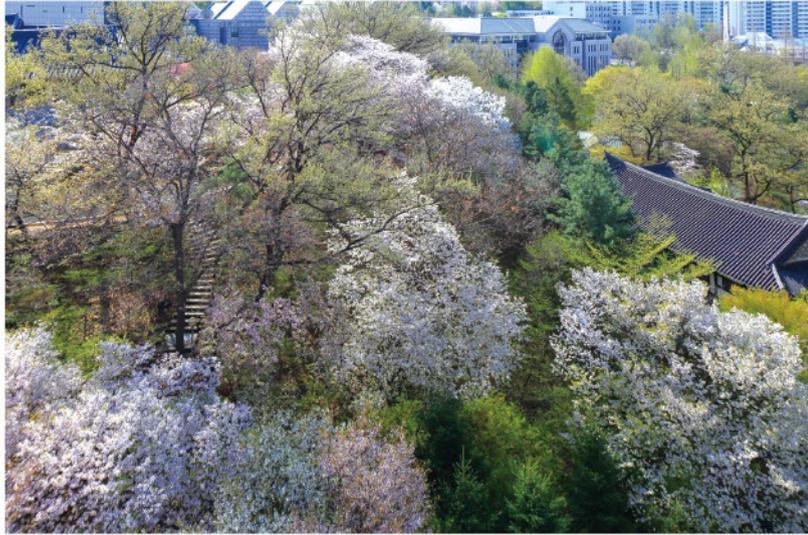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전시회, ‘황규호 사진전,

이화의 사계’(5월 21일(화)부터 31일(금)까지, ECC 대산갤러리)를 앞두고 퇴임 이후 더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황규호 교수를 만났다.

2002년 연구년을 맞아 미국에 갔을 때 작은 디지털카메라(일명 ‘뚝딱이’)를 산 것이 지금껏 본업이 된지 헛갈릴 정도로 사진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귀국 후 곧바로 입학처장과 교무처장을 맡으면서 잠시 카메라를 놓았지만, 보직 임기가 끝난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화의 풍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간혹 인적 없는 주말 이른 아침, 카메라를 들고 교정을 돌아다니다 경비원에게 ‘도촬’을 의심받아 신분 확인을 당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또 원하는 구도의 사진을 얻기 위해 비탈에서 미끄러지기도 했는데 “가을 은행 열매 더미 주변이 특히 위험해요. 거기서 넘어지면 바로 퇴근해야죠”라며 재미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황 교수에게는 ‘사진을 보고 마음에 힐링이 되었다’, ‘사진에서 이화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이화의 혼과 숨결이 느껴



종합과학관 C동 옥상에서 내려다본 역사관의 봄(나의 살던 고향) ©황규호

진다'는 찬사를 들을 때가 최고의 순간이다. “학교 홍보실을 통해 이화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들을 본 재학생과 동창들의 ‘좋아요’ 반응 덕분에 더 자주 촬영에 임하게 된다”고 고백한다.

황 교수가 사진을 찍을 때의 마음은 아이가 자랄 때 아이의 가장 예쁜 모습, 특별한 순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아빠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화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과 표정을 담아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구도를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그는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화의 건물과 자연의 조화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후 일련의 작업들은 2022년 꽃 사진을 소재로 한 학교 다이어리 제작과 2023년 학교 풍경 사진 달력 제작에 참여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그동안 찍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 무엇인지 묻자, “나 같은 아마추어는 아무래도 우연의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며 “열심히 찍기는 하지만 어느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사진을 보는 안목이 아직 부족한 것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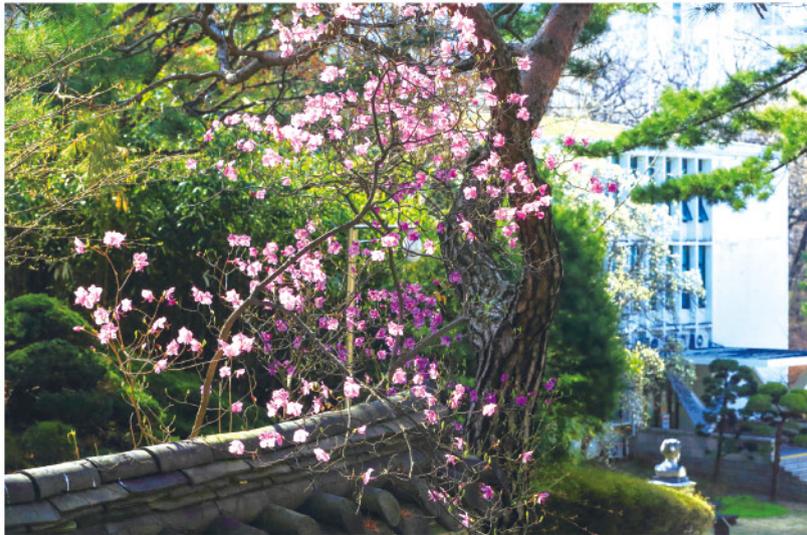
다”는 겸손의 말과 함께 조형예대 교수가 칭찬한 몇 장의 사진을 보여 줬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온 대강당 실내’를 찍은 사진과 ‘헬렌관 배경의 아령당 진달래’ 사진, 그리고 ‘종합과학관 C동 옥상에서 내려다본 역사관의 봄’(황 교수가 붙인 제목은 ‘나의 살던 고향’) 사진이다. 이화의 다양한 표정을 이만큼 잘 담아낸 것이 또 있을까. 이화의 자연은 황 교수의 사진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꽃 사진 촬영이 풀과 나무에 대한 관심으로

이화의 꽃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풀과 나무의 이름에도 관심이 생겼다. 그런 관심은 그에게 또 다른 취미, 식물을 공부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인터뷰 도중 황 교수는 휴대전화를 열어 접사 렌즈로 촬영한 갖가지 봄꽃 사진을 보여 주며 꽃 하나하나의 이름을 줄줄이 읊었다.

캠퍼스 곳곳에 피어 있는 이화의 상징 ‘매꽃’에서부터 중강당 길목의 ‘산수유’와 ‘생강나무’, 국제관 앞 노란 ‘영춘화’, 학생문화관 옆 ‘매화나



멀리 헬렌관을 배경으로 한 이령당 담장 진달래 ©황규호

무’, 대강당 옆 ‘자주목련(자목련과 다름)’, 본관 앞 ‘꽃산딸나무(‘십자가나무’라고도 함)’, 학문관 앞 ‘미선나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학교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이름도 낯선 불두화, 백당나무, 때죽나무, 박태기나무, 쪽동백나무, 골담초, 매발톱나무, 수사해당…. 어느 것 하나 감탄을 자아내지 않는 사진이 없었다.

황 교수가 이처럼 식물학 박사(?) 수준으로 꽃 이름을 꿰게 된 것은 컴퓨터공학과 용환승 교수가 운영하는 ‘나무교실’에 참여하여 식물 분류학자 소지현 박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덕분이다. 이름이 궁금한 식물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전국의 식물 고수들이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는 유용한 앱 ‘모야모’의 도움도 컸다.

황 교수는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200여 장의 꽃 사진들을 『이화 플라워즈』(가제)라는 자료집으로 묶어 E-Book 형태로 출간해 볼 것을 제안받았다. 거기에는 미국 선교사가 묘목으로 들여와 심은 꽃산딸나무 이야기, 이화여전 시절 영문과 박은혜 교수 자택에 심겨 있던 것을 1971년 현재 위치

로 옮겨 심었다는 자주목련 이야기 등의 식물 히스토리까지 담을 계획이다.

이화의 역사와 자연 통해 자라는 이화 사랑

황 교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화를 향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난다. 이에 대해 그는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이화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가장 최전선에서 뛰는 이화의 ‘영업사원’ 입학처장의 경험이 특별했다”고 귀띔한다. 이화의 역사를 알수록 감동과 사명감이 생기고, 최선을 다해 이화의 강점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화에 대한 열정이 더 커졌다는 것. 게다가 “우리 학교만큼 다양한 꽃나무와 풀을 만나볼 수 있는 캠퍼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이화의 자연환경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화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다”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학교 조경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그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화에서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화여대 남성교수 중창단' 활동이다. 최근 몇 년간, 이들의 입학식 축하공연이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각종 언론과 <유퀴즈 온 더 블릭> 같은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인기가도를 달렸다(관련 기사 《이화동창》 2022년 가을호(168호), <이화인 모임탐방>). 모교 행사 섭외 1순위로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얻은 비결은 다가가기 어려운 젊음은 교수님이 아닌,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진솔한 모습에 있었다. 황 교수는 “저마다 다른 전공에 늘 바쁜 일상이지만 이 모임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형제처럼 지내며 끈끈한 정을 나눈 덕분”이라고 밝힌다. 그만큼 격의 없는 사이로 지내며 믿음과정이 쌓인 것.

황 교수는 “이번에 새로 영입한 ‘젊은 피’ 약대 교수님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난리가 났었다”며 어느 학생이 짧게 편집해 올린 ‘입학식 공연 영상’을 보여 줬다. 비록 자신은 은퇴해 중창단을 떠나지만, “훗날 키에 잘생긴 외모로 단번에 여심을 사로잡은” 몇몇 교수로 인해 이화여대 남성교수 중창단의 인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전망이다.

“재학생이건 동창이건 ‘이화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회에서 큰 혜택을 받고 특권을 누린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 역시 “지난 29년간 이화의 이름을 통해 많은 특권을 누려 왔다”고 말한다. 이런 혜택과 특권은 부분적으로는 ‘나’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화의 이름을 통해 거저 얻은 ‘공짜 선물’이기도 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황 교수는 동창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화의 교정을 떠났더라도 언제 방문해도 마음을 편안



2024 입학식 공연 후 '이화여대 남성교수 중창단'과 함께(위)
대학원 마지막 수업 후 제자들과 함께(아래)

하게 해주는 ‘나만의 최애 장소’, 어려울 때 찾아가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화의 풍경’을 마음속에 하나씩 찾아 간직하길 바란다”고 조언한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5월 21일(화)부터 31일(금)까지 ECC 대산갤러리에서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황규호 사진전, 이화의 사계’를 개최합니다. 이화의 사계절뿐 아니라 학생 시절 친구들과 거닐던 오솔길, 치열하게 공부했던 강의실, 다양한 식물들이 꽃피고 만개하는 이화동산의 아름다움을 황규호 교수의 사진을 통해 감상하고 다양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황규호 교수가 기부한 사진의 수익금은 전액 이화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화의 기도처 순례 / 자연과학대학 기도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화 자연과학의 요람인 종합과학관 3층에 가면 이화인을 위한 아담한 기도실이 마련돼 있다. 종합과학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A, B, C, D동이 차례로 완성되었는데 기도실은 2013년 5월, B동 315호에 봉헌되었다. 근처에 자연과학대학 행정실과 교수 연구실이 있어 늘 학생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기도실 주위는 다른 세상처럼 발걸음마저 경건함을 품고 있는 듯 고요하다.

기도실은 모교의 여느 기도실과는 달리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닐곱 명이 충분히 앉아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다란 책상이



기도실 십자가

눈에 들어온다. 벽면에는 성경 구절과 기도 문구들이 소박하게 붙어 있고, 책상 한 귀퉁이에는 성경과 신약 성서 그리고 기도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기도 노트는 이 자리에 오래전부터 놓인 듯, 앞장의 기록 날짜가 꽤 오래되었다. 주님에 대한 애타는 간구와 충만한 은혜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놓은 기도 노트 글귀를 읽다 보니 희로애락이 가득 담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느낌이다. 글쓰기가 곁에 있다면 가만히 안아 주거나 손을 잡고 도닥이고 싶은 마음이다.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건물 봉쇄와 맞물려 기도실도 인적이 드물었을 터, 몇 년간 자연대 이화인과 함께했던 기도 노트가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활성화되지 못한 게 안타깝다. 더 많은 이가 기도실을 찾아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위안을 받으며, 이 노트에 다시 희망의 글귀들을 채워 나가길 기도해 본다.

책상이 놓여 있는 바깥쪽이 이화인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라면,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간 안쪽 기도실은 주님을 온전히 혼자서 만날 수 있는 기도와 침묵의 공간이다.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작은 기도실,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가냘프지만 홀로 깨끗하고 단단해 보인다.

조명을 켜니 창문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기도실 안에 순백의 작은 십자가가 혼자 조용히 빛을 밝힌다. 저 십자가에 기대어 인생을 거닌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풍파에 시달리고 힘들 때 길잡이가 되어 주는 구원의 존재,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육신이 포근히 감기는 느낌이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순간이다.



성경 말씀을 나누는 책상, 소망과 은혜를 기록하는 기도 노트가 놓여 있는 작은 기도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
한국 피아노 음악의 대모 장혜원 동창

피아노의 선율로 아로새긴 80년 연주 인생



2023년 12월 10일(일), 피아니스트 장혜원(피아노 62, 모교 명예교수) 동창의 <피아노와의 삶, 80주년 기념 음악회>가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한국 피아노 음악의 대모이자 원로 예술가인 장동창이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피아노와 함께해 온 연주 인생을 갈무리하는 기념비적인 연주회였다. 뜻깊은 연주회를 마친 장 동창을 만나 음악가로서의 여정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이화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열정과 치열함으로 이룬 80년의 피아노 여정

우리나라 1세대 피아니스트를 대표하는 장 동창은 1960년대에 이화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독일 국비장학생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에 유학해 1968년 독일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고 연주자 학위(Konzert-Examen)를 취득했다. 귀국 후부터 2005년 퇴임 때까지 모교 교수로 재직한 36년 동안 모교 음대 학장 및 음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퇴임 후에는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장으로 음악교육에 힘썼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연주 활동과 함께 한국피아노학회 이사장 및 이원문화원 대표로서 우리 클래식 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열정 어린 행보와 탁월한 연주 활동으로 독일 정부에서 수여하는 십자공로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3·1문화예술상, 녹조근정훈장, 이미륵상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제20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되었다.

피아노와의 인연은 다섯 살에 시작됐다. “어머니가 딸을 낳으면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키우려는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6·25 전쟁 때 대구로 피난을 갔는데 전쟁 와중에도 어머니는 커다란 창호지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 방바닥이나 밥상 위에 올려놓고 스케일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셨죠. 아버지는 의학도이셨음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오케스트라인 ‘경성제대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음악과 늘 함께하셨어요.” 장 동창은 자신이 피아니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기까지 음악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회고했다.

장 동창이 피아니스트로 걸어온 여정은 다채롭다. 한국과 아시아, 미주, 유럽을 포함한 해외 각

지에서 독주 및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클래식 음반 레이블 나소스(Naxos) 소속 아티스트로 1980년대부터 약 15년간 11장의 단독 음반과 수많은 유니버스 음반을 녹음했다. 특히 가브리엘 피에르네 피아노곡집, 33개의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와 자크 이베르 피아노 작품집 등은 세계적인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악가 레나타 테발디, 프랑코 코렐리,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앙 페라스, 루지에도 리치, 첼리스트 앙드레 나바라 등 세계 최정상급의 음악가들과 협연하는 한편, 50여 회 이상 국제콩쿠르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장 동창이 연주한 바흐와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연주는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영화 《툼 레이더》와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같은 영화의 삽입곡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다재로운 연주 이력을 가진 그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장 동창은 “독일 유학 시절에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정기 공연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피아노 독주자 오디션에서 협연자로 뽑혔던 거라 의미가 남달랐죠. 60년대니까, 그곳 사람들이 한국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우습게 알던 시절이라서 독일 학생들 다 물리치고 협연자로 선발됐을 때 ‘독일 사람을 이겼다’는 뿌듯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라며 웃음 지었다.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나이를 초월하다

지난 (8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장 동창은 독주곡으로 스카를라티와 가브리엘 피에르네의 피아노곡을 연주했다. 80주년 기념 연주회의 레퍼토리로 이 곡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장 동창은 “스카를라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이고, 건반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음악

이에요. 현대적인 피아노 테크닉의 많은 부분을 창안한, ‘근대 피아노 주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죠. 젊은 시절 제가 연주했던 스카를라티 소나타 33곡 음반이 높이 평가를 받으면서 피아니스트로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준,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작곡가이기도 해요.”

80주년 기념 연주회를 앞두고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며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연주회 이틀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을 다쳤어요. 정말로 큰 일 날 뻔했죠. 연주회 당일까지도 발이 퐁퐁 부어서 그냥 억지로 구두에 끼워 넣고 음악회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신고 있었어요. 벗으면 다시 못 신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후유증으로 고생을 좀 했어요. 피가 딱 고여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하마터면 연주회 못할 뻔했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 동창의 표정에서 그녀가 평생에 걸쳐 견지한 연주자로서의 열정과 책임감이 엿보인다.

이와 함께 장 동창은 “이번 80주년 기념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민한 게 있어요. 노안이 너무 심해져서 악보가 잘 안 보일까 봐 엄청 걱정했어요. 악보가 두 줄로 겹쳐 보이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일이라, 이번에도 컨디션 조절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무대 위에서의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 뒤에 자리한 원로 음악가의 소박한 고충을 들으면서 여전히 연주자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놓치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테크닉보다는 가사의 해석과 문학적 이해가 중요

장 동창이 음악가로서 소중히 여기는 음악적 철학에는 예술에 대한 오랜 경험과 연륜이 담겨 있다. 그녀는 “좋은 음악을 하려면 테크닉만으로는 안 돼요. 음악은 자연과 여타 예술과 밀접한 관련



2023년 제12회 이미르크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이 있어요. 음악은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 다방면의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또 자연을 가까이 접하고 자연이 비춰내는 온갖 오묘한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예술작품과 자연에서 보이는 온갖 다양한 색채가 음악가의 연주 속에서 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바탕 위에서 자기만의 개성 있는 음악, 독특한 자기만의 음악적 해석과 연주의 색깔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라고 말하며 독일 유학 시절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실수 안 하고 완성도 있게 연주하고 콩쿠르에 입상하는 게 목표였고, 테크닉 위주의 빠른 곡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독일 유학을 하면서 소중한 가르침을 얻었어요. 당시 세계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피아노에만 매달리지 말라고 늘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훌륭한 기교를 가진 테크니션을 넘어서 좋은 음악가가 되려면 자연과 늘 가까이 접하면서 자연의 색채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문학, 미술, 철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공부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또 베르나트(Bernat)라는 성악 교수님 수업의 전속 반주자로 3년 동안 많은 독일 가곡을 접했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교수님

은 전체 레슨 시간의 절반을 성악 발성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시(가사)에 대한 해석과 문학적 이해에 할애하셨어요. 그것이 큰 공부였죠.”

이러한 배움은 장 동창의 음악적, 예술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 모교 음대에서 피아노 반주법을 가르치고, 많은 음악인과의 앙상블 연주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끊이지 않는 도전, 'K-클래식'을 꿈꾸며

한국피아노학회 이사장인 장 동창은 2022년부터 ‘피아노 소협주곡(Concertino for Piano and String Quartet)’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한국 민요와 전래동요를 모티브로 작곡된 창작곡들의 연주회를 기획하고 공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피아노 소협주곡 프로젝트는 유망한 젊은 작곡가와 연주자들에게 창작과 연주의 기회를 열어 주고, 나아가서 클래식보다 친근하게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장 동창은 한국피아노학회와 그녀가 대표로 있는 이원문화원을 기반으로 그동안 많은 소협주곡 창작곡들을 생산해 무대에 올렸고, 8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도 신동일의 〈오빠 생각〉, 〈봄바람〉, 정보형의 〈새야 새야〉, 김은혜의 〈아리랑〉 등 한국적인 소재의 피아노 소협주곡을 리움현악사중주단과의 협연으로 연주했다.

“소협주곡 프로젝트가 제법 왕성해져서 지금은 세계 각국의 작곡가들이 소협주곡 작품을 저희에게 보내 주고 있어요. 올해 안에 외국 작품까지 포함해서 100곡의 소협주곡 작품을 모으고 악보화하는 게 목표예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클래식을 꿈꿔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오래된 서양음악의 답습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소재로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고, 이를 세계

적으로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는 장 동창의 모습에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젊은 열정'이 가득했다.

장 동창의 마음에 자리한 또 다른 음악적 소망은 클래식 대중화이다. “독일 유학 가서 처음 몇 달 동안 독일어 공부하느라 독일 남부 슈타펠(Staffel)이라는 호숫가 근처 무르나우(Murnau)라는 시골 동네에서 살았어요. 저녁때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마을 주막이나 음식점에 모여서 독일식 순대랑 맥주 마시면서 다 같이 팔짱 끼고 노래를 부르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또 이 사람들이 농한기만 되면 말쑥한 정장차림으로 나비 넥타이 매고 근처 뮌헨 오페라하우스에 가서 공연을 즐기는 거예요. 음악이 그 사람들 생활 속에 스며 있는 거죠. 당시 전쟁 치르고 가난에 허덕이던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가 많이 됐어요.”

장 동창은 경제적인 평준화만큼이나 문화 향유의 평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하며, 클래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친근한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싶다고 했다.

‘이화의 음악 할머니’에서 ‘국민 음악 할머니’로

이화는 장 동창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터전이다.

36년 동안 음악대학에 몸담으면서 모교 음악대학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본 장 동창은 내년 2025년에 100주년을 맞는 이화여대 음악대학이 오랜 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화대학은 우리나라 최초로 음악 전문교육을 시작한 곳이고, 우리의 서양음악 125년 역사에서 이화대학이 해온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 역사와 자부심을 잊어선 안 돼요. 동시에 오랜 역사와 명성에 안주하지 말



장 동창의 80주년 기념 연주회를 찾은 친지, 동료, 제자들과 함께

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력 있게 읽어내서 연주자 양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초 음악교육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화를 이뤄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묵은 역사만 끌어안고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장 동창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김옥길 선생님이 작고하시기 한두 해 전쯤에 흔들의자에 앉아서 저한테 ‘이화의 음악 할머니만 되지 말고, 우리나라의 음악 할머니가 되거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나가는 얘기처럼 해주신 말씀인데 평생토록 잊히질 않았어요. 피아노학회, 이원문화원 섬머 캠프, 소협주곡 프로젝트 등으로 올해도 일이 많아요. 어떤 일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은 너무 침체돼 있는 것을 다시 되살려야 하고... 하지만 한꺼번에 욕심을 부려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엉켜 있는 실타래 풀어나가듯이 한 걸음씩 해 나가야죠. 지난해 말 80주년 기념 연주회를 하면서 마음이 더 조금해졌어요.”

이화의 음악 할머니이자 우리나라의 음악 할머니인 피아니스트 장혜원 동창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글·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아이들의 미래가 빛날 수 있기를



과학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이해정 동창(오른쪽)

저는 1989년 자연과학대학 화학과를 졸업한 이해정으로, 미국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이화대학 졸업 후 카이스트(KAIST) 화학과에 입학해 무기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삼성반도체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 도미하여 지난 24년간 미국 표준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 프로그램 관리자(International Program Manager)로, 유럽과 아시아의 해외 연구 기관들과 NIST와의 국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화동창》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전 가족이 함께 섬기는 과학 전문인 선교단체인 Lumynt를 시작하도록 감동하시고 이끄셨는지 소개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동창과 연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Lumynt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정식 등록된 국제 STEM 개발 협회(International STEM Development Association, ISDA) 산하 협력기관입니다. Lumynt는 Light과 Mind의 합성어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을 점화시켜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Ignite Young Minds, Illuminate the Future). 사실 빛을 점화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소득층, 고아, 탈북 주민 자녀에게 과학 실험 기회 제공

10년 전, 앞으로의 저희 가정의 비전에 대한 저희 부부의 생각을 두 아들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과학/공학과 관련된 과목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과학/공학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는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달란트를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과도 나누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서 섬기길 원하시는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바호 단기 선교팀과 협력해서 여름 성경 학교 과정 중에 과학 활동 시간을 특별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한국에 있는 저소득층, 고아, 탈북 주민,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기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코

로나19 전까지 한 대기업 부사장님의 도움으로 충청도 괴산 인근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섬길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단체와 동역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렸고, 한국의 여러 지역뿐 아니라 미국, 몽골, 필리핀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기독교 학교 학생 등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과학 실험(Hands-on-science)의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링 세션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들어 주고 저희의 경험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 발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조절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하실 분들도 때에 맞추어 보내 주시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이끌어 주시면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은 20명이 넘는 기독교 과학자, 공학자, 의사, 개발자(Software Developer) 등으로 구성된 전문사역자들에 의해 3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을 개발하여 저희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사이트 (<http://www.lumynt.com/>)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사역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진 그동안의 사역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린 학생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역은 전 가족이 같이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보다 과학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주 안에서 섬김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아름다워서 전 가족이 참여하고 있고,

10년 전 어린아이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10년 동안 보고 배운 것들을 기쁨으로 함께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섬김의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캠프를 마친 후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도 1년 중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긴 코로나19 기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셨고, 코로나19 직전 미국 국무부 프로그램인 Embassy Science Fellow Program에 선정되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Women in STEM'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화상으로 과학 체험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코로나19 기간에 화상으로 과학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고, 올해는 4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한국에서 과학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준비시키심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어떤 만남을 허락하실지 늘 기대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동창과의 동역 또한 기다립니다. 지난 10년간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일이 나눌 수는 없지만 짧게나마 저희 선교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140년 전 어둠에 갇혀 있던 조선에서 단 한 명의 여학생으로 시작하셨던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헌신과 도전이 동창들에게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해가 갈수록 더 이화인임이 자랑스럽고 이화를 사랑하게 되는 이혜정 동창이 소식 전합니다.

* 미국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이혜정(화학 89) 동창이 과학 전문인 선교단체 Lumynt를 소개하면서, 더 많은 이화 동창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골 때리던 그녀’ 안근희 동창

이대 여자축구팀 창단 멤버에서 국가대표와 교수까지



원조 ‘골때녀’, 이대 여자축구팀 창단 멤버

TV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은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지닌 여성 출연진들이 축구공 하나로 푹푹 뭉쳐,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임하며 감동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프로그램의 인기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여성 축구 동호회 붐으로까지 이어졌다. 강산이 세 번 정도 바뀌면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여자축구, 우리의 생애주기로 바라보자면 청년기에 이른 여자축구의 시작에 안근희(체육 93) 동창이 있다.

축구는 혼자 할 수 없는 스포츠이다. 11명이 팀을 이루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어렵고 의미 있다. 여자축구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자축구팀은 1990년 5월 창단됐다. 그 해 9월 북경아시아게임에 여자축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다음 해부터 월드컵 대회가 생기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모교 체육학과와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팀을 창단하게 된 것이다.

당시 체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안근희 동창은 이대 여자축구팀의 창단 멤버가 되었다. “이대 여자축구팀 창단이 결정된 후, 학생들이 축구를 했던 경험이 다들 없으니까 교수님 들께서 여러 실기 수업을 통해 잘 뛰거나 축구를 잘할 만한 학생들을 물색하면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하셨던 거죠. 저는 그때는 그런 배경은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창단 멤버가 됐어요.”

‘트레이닝복’과 함께 시작된 축구 인생

안근희 동창을 축구의 세계로 발 디디게 한 데에는 친한 선배의 구애와 트레이닝복의 역할이 컸다.

“88학년 선배 중에 친한 선배가 있었어요. 전공 필수과목이었던 수업을 새벽마다 열심히 가르쳐 주고, 저를 너무 예뻐해 줬던 고마운 선배였죠. 어느 날 그 선배가 축구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트레이닝복도 주고, 신발도 주고, 유니폼도 주니까 들어와서 사진만 찍으면 된대요.

좋아하던 선배의 부탁인 것도 있었지만, 트레이닝복을 준다니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그렇게 입단하게 된 축구팀에서 강신우 감독을 만났다. 당시 프로 축구팀 럭키금성 선수로 활약하다가 이대 여자축구팀 감독으로 발탁된 강 감독은 준수한 외모로 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감독님은 선수들 캐릭터 파악에 뛰어나셨어요. 개개인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량에 집중해 주셨죠. 저희 대부분이 축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강하게 트레이닝 시키기보다는 각자의 특성을 잘 살려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엔 엄청난 체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아끼고 있다가 골을 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비록 입단 계기는 트레이닝복과 가방이었지만, 그때 감독님이 ‘잘한다 잘한다’ 해준 덕분에 더 열심히 해서 득점상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창단 이후 이대 여자축구팀은 많은 곳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원정 경기를 다녔다. 지금은 대중화됐지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축구를 하는 것은 이목을 끄는 일이었다. 북경아시안게임 출전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정부는 각 대학마다 여자축구단을 신설했지만 팀이 부족하여 연습 경기 등을 자주 할 수 없었다.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남자축구팀부터 미군부대 자녀들까지 여기저기서 초청해 주면 달려갔다.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대응은 호기심을 가지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줬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해 보면 다른 대학이 아닌 이화여대에서 여자축구팀을 만들었다는 걸 신기해하면서도 응원을 해준 것 같아요. 한번은 전라도 진도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경기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대 여자축구팀이 온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고 경기 끝나고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목욕탕도 가고, 덕분에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우연한 시작이 국가대표 발탁으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축구는 안근희 동창을 국가대표로까지 만들었다. 이대 여자축구팀 멤버로 활동하던 3학년, 아시안컵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던 것. 하지만 국가대표 수락 결정이 쉽지 않았다. 국가대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게 될 것 같았다. 뒤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국가대표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족 포함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서 내심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이면 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국가대표가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주변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결과적으로도 국가대표 생활은 안근희 동창에게 값진 인생 경험이 되었다. 태릉선수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국가대표 생활이 정말 힘들었다. 5시 기상나팔에 맞춰 일어

나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또 운동하기, 심지어 야간까지 멈추지 않았다. 밥 먹고 운동하기를 매일같이 반복했다. 괴롭고 힘든 생활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뉘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운동을 배웠다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배운 시간이었다.

그래서일까. 당시 학업을 병행했는데, '그때 학점이 전 학년 통틀어서 가장 좋았다'며 호탕하게 웃는 안동창. 1년간의 국가대표 활동을 마친 그녀는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졸업 때까지 이대 여자축구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중간에 나간 선배들도 있지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봄, 가을에 대학팀들끼리 대회가 열렸는데 후배들이 숙대랑 하는 경기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물러나도 되는 4학년이지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명감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사명감과 후배들과 팀에 대한 애정으로 경기에 나갔죠."

순간의 진심이 만들어내는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와 인생의 공통점은 각본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 큰 감동을 그려내기도 한다. 극적인 사건과 상황의 연속이지만, 예측할 수 없기에 순간순간 진심을 다해 앞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안근희 동창 역시 그랬다. 처음부터 체육 전공을 희망한 것은 아니었다.

"이과였고, 진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했죠. 신체 움직임을 좋아하니 건축 쪽을 같가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운동을 탁월하게 잘한다고 했어요.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면 다른 친구와 반 바퀴 정도 차이가 날 정도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잘하는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죠."

그렇게 시작한 체육은 안근희 동창을 축구팀으로, 국가대표로, 또 국가대표의 경험은 그녀를 교수로까지 만들었다. 대학 졸업 후 이대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친 안근희 동창은 교수 임용을 준비하던 중 대진대학교에서 교수 임용 우대사항에 국가대표가 있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대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 공부가 좋았어요.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했죠. 석사를 마치고 또 한 번 선택의 순간을 맞았죠.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임미자 교수님께서 박사과정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만약 제가 그 청을 수락하면 임 교수님 지도를 받는 첫 박사가 되는 기회였어요. 지인들에게도 물었어요. 열이면 열 모두 국내 박사를 권했어요. 덕분에 새로운 기회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학업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4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대학원 석사과정부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휴학을 하고 강신우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 외국계 보험회사에 입사해 등록금을 마련한 뒤 다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박사과정에서는 의료진들과 비만

연구를 하던 임미자 지도교수 덕분에 일본에서 당뇨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을지병원에 근무하면서 운동생리학의 임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사논문 통과 는 계속 지연되었다. 함께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던 선배는 이미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 귀국한 상황이었다. 답답한 진로 미래 앞에서 가끔 흔들리기도 했다는 안 동창.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결국 지도교수의 '첫 번째 박사이자 마지막 박사'로 졸업하고,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포스트닥터과정까지 마쳤다.

우연한 시작이었을지라도, 그녀가 지나온 길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말은 바 최선을 다해 온 안근희 동창의 '진심'이 묻어 있었다.

성실, 꾸준함, 노력으로 현재를 충실히 살라

“제가 지금 학교 실기 수업 중에 골프를 맡고 있는데, 좀 더 잘 가르치겠다고 레슨을 받기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어요. 뭐가 자꾸 힘들고 안 되면 분석하려 하는데, 그럼 주변에서 '선수 생활을 해봐서 저런 근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모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정년 이후 어떻게 살고 있을지 막연하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죠. 그때도 그냥 루틴을 짜서 그 루틴대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안 동창이 학생들에게도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성실, 꾸준함, 노력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교수로서 무언가를 성실히, 꾸준히, 노력하면서 살

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삶을 주도하는 안근희 동창.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보내는 모습에서 굳센 믿음이 느껴진다.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미래의 시간만큼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온 신중한 태도에서 신뢰가 우러난다. 그래서일까. 10년 후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그대로 믿어진다.

인생에서 만나는 우연한 기회가 루틴의 힘을 만나면 마치 섭리에 의해 움직이는 계획된 우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대 여자축구팀 창단 주역, 안근희 동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맴돌던 생각이다. 현재를 충실하게, 매 순간 성장을 거듭해온 안 동창. 푸른 상록수를 닮은 그녀의 한결같은 힘을 차게 응원한다.



대진대 제자들과 함께

글·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캄보디아 이철희 동창

진료소 활동이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스령이화보건진료소와 이화스령학교 사역

1월에 진료소에서 총 110건의 진료와 투약 처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시원하니 주민들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물과 담장 주변의 나무들이 너무 크게 자라서 그들이 생겨 시원하지만 뿌리가 굵어져 건물이나 담장을 훼손시킬 것이 우려되어 기술자를 고용하여 모두 여덟 그루의 나무 밑동을 자르고 약물 처리하여 뿌리를 죽게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무 밑동 굵은 것들을 이화스령유치원에 보내서 야외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화스령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학생들과 교사들 위생과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손톱이 긴 어린이 학생들이 있어 손톱 깎기 통을 초등, 중고교 교무실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약품 박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등 4~5학년 어린이 중 초기 감기 증상이 많아 각각 5분 정도 감기를 완화하는 식이와 위생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천한 어린이는 감기 증상이 없어졌고, 중고교 교사 한 분이 위장 장애가 있어 상담을 하고 계속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 전도와 간호, 어린이 사역

매주 월, 화요일 오후에 각 한 마을씩 두 마을을 계속 방문하여 어른 서너 명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과 어린이에게 성경과 찬양을 가르치고 손톱 깎기를 실시합니다. 펙마을의 라웃이라는 초등 5학년 남자 어린이가 눈의 알리지로 가려움증과 눈부심이 심해 어려서부터 안과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절망적이라고 그 어머니에게 들으니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예수님께서서는 고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어머니와 라웃에게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매주 그 집을 방문하여 성경을 전하다 보니 동네 어린이들 10여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밤에 발작적으로 나타났던 눈의 가려움 증은 주님께서 전도하고 기도 시작한 이후로 생기지 않았고 눈부심도 점점 개선되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와 동생과 라웃이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제 라웃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니 질문에 대답도 잘합니다. 라웃을 통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도록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좌측의 두 번째 어린이가 라웃이고, 첫 번째 어린이는 동생입니다.

쁘레이프라는 마을에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어린이 위생교육과 전도를 했는데, 1월부터 다시 방문하여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와서 주중과 주말에 활동하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년이 올라가며 과외수업 받느라고 시간이 없어 1월에는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모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서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초벌 번역하여 현재 두 번째 단계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수정, 교정 작업을 완료하여 현지인의 감수를 받고 출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이철희(간호 88)



기도해 주세요

1. 진료소 활동이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고 연약한 현지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2. 펙, 뿌레이프 마을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라웃 어린이의 눈부심 증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라웃과 가족들이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며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3. 『하나님을 아는 지식』 책 번역 후 수정·교정 과정에 현지 인도우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잘 마치게 하소서.
4. 2년 전에 경추 디스크 진단받고 물리치료와 휴식하며 회복되었는데 요즘 어깨 통증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운동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 동 창 회 소 식

1

‘동창의 날’ 기념행사인 합창제 유지 여부 논의

2024년도 2월 15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총 43명의 임원 중 참석 33명, 위임 8명, 불참 2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2024년 2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23년 추경예산안 및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동의와 재청으로 통과되었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3월 행사인 정기총회와 신입 동창 환영회 진행 상황을 보고한 뒤 5월 동창의 날 기념행사 중 ‘합창제’ 유지 여부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동창회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합창제가 효과적이고, 합창을 연습하는 동안 선후배 관계도 돈독해지므로 합창제는 꼭 있어야 한다(우미형(의직 77) 생활환경대 회장), “‘동창의 날’ 행사와 합창제를 하루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윤금진(영교 80) 사범대학 회장), “합창이 사라지는 추세지만 없애는 것은 서운한 측면이 있다(강승주(조소 87)

조형대학 회장)”는 유지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열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면 진행하고, 소수의 대학만 참여하면 합창제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황복기(화학 83) 자연대학 회장)”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김구슬(법학 93) 법대·법전원 감사는 “법대·법전원 합창단은 동창들의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연로해짐에 따라 합창단원들을 새로 모집하여 젊은 연령대의 합창단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전했고, 문주원(피아노 88) 음악부장은 합창제의 지속에 찬성하며 “이대 졸업생 지휘자 모임이 결성되어 있으니 합창제 연습을 위해 지휘자 연결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임선영(의학 82) 의과대학 회장은 “의과대학 합창반이 이미 있는데, 모두 직장인이라 5월 31일 금요일 오후 시간대의 합창제 참석이 쉽지 않겠지만, 올해 동창회 행사에 참가하도록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과반수 이상의 임원진이 희망하므로 합창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경연을 하기보다는 참가를 희망하는 단과대학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인의 밤’ 개최 장소에 대하여 지난해 호텔 행사가 좋았다는 의견과 비용 면에서 모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것을 감안해도 체감상 25만원은 과하므로 대강당이 좋다는 의견, 대강당과 호텔을 격년으로 실시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 개최 장소를 3월 정기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안내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국내 지회 장춤 미팅에서 국내 지회 순방 요청이 많아 제주도 등 몇 곳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이화동창》 표지에 아름다운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모교 사범대 교육학과 황규호 명예교수

가 올해 정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촬영한 이화 풍경 사진 작품을 총동창회에 기증하였다며, 5월 21일(화)부터 31일(금)까지 ECC 대산갤러리를 대관하여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알리고 작품 판매 수익은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동창회의 사무실 명칭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변경한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신입 동창 가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미영(컴공 85) 공과대학 회장은 최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동기들과 같이 입학해도 같은 시기에 졸업하지 않거나, 입학 당시의 전공이 아니라 복수전공 등으로 졸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동창 개념의 정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개인 정보보호가 엄격하여 연락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입 동창의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면서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냈다. 장미현(건축 00) 신입 공과대학 회장은 공대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은 신입 동창의 정보를 받을 수 없어서 학과 설립 초기 10년의 졸업생 위주로 좁은 층에서만 동창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생 학과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재학생 및 신입 동창들은 동창회의 필요성이나 흥미를 느끼지 않는 세대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신입 동창들을 어떻게 동창회와 연결할지,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에게 동창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소극적 대안이지만 2월 26일(월) 모교 전기 학위수여식 당일 대강당 및 ECC 부근에서 명함 크기의 안내문을 넣은 동창수첩 1,000부를 배포하여 신입 동창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였다. 허은경(제약 87) 약학대학 부회장은 약학대학에서는 동창 및 신입 동창과의 연결을 위해 각 기 대표를 중심으로 구글폼을 이용, 신상 정

보를 취합하여 직장과 이메일만 기입 후 인쇄하여 졸업생들에게 동창 명단을 배부하였다고 설명하고, 각 단과대학 동창회에서 기 모임 단위로 활동하면 효율적이므로 기 모임을 만드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한 임원진들은 총동창회와 각 단과대학 및 학과별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여 신입 동창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2

신입 동창 직접 만나 동창 수첩 1,000부 배부

2024년 2월 26일(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동창회 이명경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10여 명은 대강당 계단 아래 광장과 본관에서 중강당 가는 길목 두 군데에서 신입 동창들을 대상으로 동창수첩 1,000부를 무료로 배부했다. 모교 전기 학위수여식인 이날, 교정에는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졸업생들이 가득했는데, 총동창회 임원진들은 후배들을 직접 만나 졸업을 축하하고 격려했으며, 총동창회 가입을 독려하는 등 훈훈한 선후배

동창 수첩을 배부하고 있는 임원들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수첩 안에는 신입 동창들이 총동창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동봉하는 등 후배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총동창회의 후배 사랑과 노력을 보여 주었다.

3

하반기 주요 행사인 '이화인의 밤' 장소 결정

2024년 3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이화정(대학원 92) 대학원 회장이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인사하고 정순둘(대학원 89) 신입 회장을 소개했으며, 변은경(간호 83) 간호대 회장은 2023년 '영원한 이화인'인 김영순(보건간호 73) 동창이 2월 18일(일) 소천하셨다고 전하며 총동창회, 간호대학 동창회, 간호대학에서 근조화환을 보내드렸다고 알렸다. 안경희(법대·법전원 86) 법대·법전원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했다고 보고하며, "총회 정족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낮추

는 한편, 현재 사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모두 개정하고 옛날식 표현도 수정했으며, 법률 조문 및 자구 수정과 넘버링 등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히며, 법대·법전원 동창회에 요청하면 정관 개정 샘플을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안건토의로 들어가,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3월 9일(토) 열리는 정기총회를 공지하고 "2023년 정기총회에는 많은 동창이 참석해 장소가 다소 비좁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1층 Main Hall에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알리며, 새로운 장소라서 임원과 각 대학 회장들이 많이 도와 주길 부탁했다.

또한 지난 2월 26일(월) 학위수여식 날, 명함 크기의 안내문을 넣은 동창 수첩 1,000부를 준비해서 가운데 입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배부한 것과 관련, 한은주(특고 79) 부회장은 "순식간에 배부가 끝났고, 동창회 가입과 동창회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고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알리며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일리노이 지회에 인준서를 보냈는데, 일리노이 총회를 하면서 인증서를 둘러싸고 동창들이 즐거워하는 사진을 보내왔다고 알리며, 지회가 곳곳에 새로 세워져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화인의 밤' 행사 장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 끝에 거수로 장소를 결정했는데, 올해 행사는 호텔 개최로 최종 결정되었다. 윤금진 사법대 회장은 동창들이 '이화인의 밤' 행사 티켓을 총동창회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오픈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였고,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하였다.

3월 정기 임원회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2024 단과 및 단대(원) 선교부장 간담회’를 다녀와서

지난 2월 27일(화) 오후 3시에 동창회관 대회의실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4 단과 및 단대(원) 선교부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한은주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무 등 임원들이 함께했고, 안선희 교목실장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또 선교부 부원들과 각 단과대학 및 각 학과(전공) 선교부장 총 35명이 참석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인 김미순(기독 75) 전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인도로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함께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성혜옥(영문 70) 전 총동창회 선교부장이 대표로 나와 이화와 동창 선교사들, 그리고 각 단과대학 및 각 학과(전공) 선교부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였다. 그 뒤에 안선희 교목실장이 열왕기상 3장 9-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왕상 3:9-10)

듣는 마음은 표준새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선교부장으로서는 동창 선교사들과 선교부원들의 여러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듣고 중보하며 서포트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주의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선교부와 선교부장의 수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조선영(영문 74)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2023년 선교부 사역 보고가 있었다. 월별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선교부장의 역할(1. 지속적인 중보기도 2. 동창 선교사와의 활발한 소통 3. 사랑의 후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올 한 해 각 단과대학과 각 학과(전공)의 선교부가 활성화되고, 동창 선교사를 더욱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선교지와 이화에 이뤄지도록 힘써 주길 당부했다.

이후에 참석한 선교부장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선교부장으로서의 소감과 각오를 나누고, 각 단과와 전공의 선교부 모임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다른 단대나 전공의 선교부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총동창회 선교부로서의 소속감도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24년 이화여대에 선교와 부흥의 불이 임하길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 주님께 감사드린다.

2024 단과 및 단대(원) 선교부장 간담회



글·이수진(조소 05, 조소전공 선교부장)

모교소식

1

평화 구축을 위한 10년의 여정 '2023 윤후정 통일포럼' 개최

'2023 윤후정 통일포럼'이 2023년 12월 4일(월) 오후 2시 ECC 이삼봉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포럼은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들(Womans for Peace Building)'을 주제로 이화가 걸어온 통일과 평화를 향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전 세계 여성들의 평화 구축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은미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10년간의 여정: 윤후정 통일포럼'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열었다. 김은미 총장은 "윤후정 통일포럼은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과 토론의 장으로, 윤후정 통일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림 알살렘(Reem Alsalem)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이 기조연설자로, 한국 여성 최초 세계보건기구(WHO) 국장을 역임한 강민휘 전 국장이 대담자로 참여해 '분쟁 상황에서의 여성과 여아: 젠더 중심의 평화 구축'에 관해 대담을 진행했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갈등'은 세계적 도전과제로, 갈등과 폭력 상황 속에 여성과 소녀들은 젠더 기반의 폭력에 희생되고 있으며, 교육·의료·이주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평화와 안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하며 "여성의 참여권은 유엔과 국제법에서 보장받는 필수적인 권리로,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평화 구축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과 강민휘 전 WHO 국장의 대담에서는 오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무국적·무정부 상태의 여성과 아동의 현실, 갈등 시기의 젠더 기반 폭력, 여성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윤후정 통일포럼을 통해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여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오른쪽)과 강민휘 전 WHO 국장의 대담



고관은 13개국의 유엔난민기구(UHCHR)에서 국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성과 소녀 폭력 생존자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계획과 시행·감시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3년 임기의 여성폭력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강민휘 전 WHO 국장은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국제기구초급전문가)를 시작으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거쳐 2018년 한국 여성 최초로 WHO 국장을 역임한 국제구호 전문가다.

세션2는 모교의 북한·통일연구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모교는 지난 10년간 북한·통일연구를 수행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논문실적 최상위를 기록하고, 특히 여성젠더 연구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존 분과 학문뿐 아니라 여성사·일상사·소수자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초국적 평화 구축의 관점에서 통일과 북한 문제를 조명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어 '이화, 여성과 통일: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북한·통일연구 기관장들의 대담이 진행됐다. 모교를 대표해 박원곤 통일학연구원장(북한학과)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 임소진 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탈북 여성 문제, 평화에 방점을 둔 통일 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분단을 넘어 평화 구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모교 통일학연구원과 센트럴랭커셔대 한국학연구소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으로 마무리됐다.

윤후정 통일포럼은 한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

이자 모교 제10대 총장을 역임한 윤후정 전 명예총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단 극복'이라는 신념에 따라 2013년에 15억 원을 기부하면서 마련된 통일 논의의 열린 장이다. 모교는 윤후정 통일포럼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통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미래 세대가 통일의 당위성을 공유하며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윤후정 통일포럼은 모교가 지난 10년간 북한·통일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를 전개하며 사회, 학계, 후속세대의 오피니언리더로 자리 매김한 발자취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2

'2024 이화여자대학교 신년 음악회', 지역사회와 함께 새해 축하

모교는 1월 2일(화) 오후 2시 대강당에서 '2024 신년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처음으로 서대문구민을 초청해 열린 이번 신년 음악회에는 1925년 한국 최초의 음악과로 설립된 모교 음악대학의 교수, 재학생, 졸업생이 모두 참여해 수준 높

서대문구민과 함께한 신년 음악회



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모교 교직원 및 학생, 지역 주민 등 2,800여 명이 참석해 만석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관현악과 배일환 교수와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으로 지난해 3월 모교 사회복지학과에 부임한 이지선 교수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은미 총장의 새해 인사로 문을 열었다. 김은미 총장은 “1956년 동양 최대 규모로 지어져 재플을 비롯해 입학식과 졸업식 등 큰 행사가 치러지는 의미 있는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께 음악회로 새해 선물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2024년에는 푸른 용처럼 희망과 꿈이 가득한 멋진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음악회는 건반악기와 계명선·김정은 교수가 연주하는 슈베르트(F. Schubert)의 피아노곡 〈3 Marches militaires for 4 hands, Op.51, D.733 No.1 in D Major〉 연주로 힘차게 문을 열었다. 이어 서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 되는 멋진 방법〉, 〈함께 걸어 좋은 길〉 합창을 선보였다.

이화가야금양상블 WITH(가야금 지도: 이수은)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디즈니연곡〉을 25현 가야금 연주로 선사했으며, 이화SORI(소리 지도: 강효주)는 스크랜튼 선생의 이화학당 설립 과정을 그린 〈교육의 불꽃-스크랜튼〉 중 여러 곡의 창극 공연을 통해 이화학당에서 이화여대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희망찬 여정을 전하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관현악과 성기선 교수의 지휘 하에 모교 음대 교수, 졸업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이화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P. Tchaikovsky)의 명작 《The Sleeping Beauty(Suite), op. 66a》 중 〈Panorama〉와 〈Waltz〉를 연주하며 웅장한 선율로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2013년 창단된 이화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 대학 최초



공동 사회를 맡은 배일환·이지선 교수

로 졸업생과 재학생 단원으로 구성된 상설 관현악 단으로 전문적인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연의 마지막은 이화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성악과 신지화 교수와 이화음대합창단(합창 지도: 최예지)의 환상적인 협연 무대로 마무리됐다. 먼저, 소프라노 신지화 교수는 드보르자크(A. Dvořák)의 〈달에게 부치는 노래(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강 건너 봄이 오듯〉(송길자 시/임공수 곡)을 아름다운 선율로 선사해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이화음대합창단은 모교 작곡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우간다 출신 샤론 키아(Kia, Sharon Peace)가 솔로를 맡아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부른 주기도문 합창곡 〈바바 예투(Baba Yetu)〉(Christopher Tin 작곡)와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로 영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합창곡 〈예루살렘(Jerusalem)〉(Hubert Parry 작곡)을 멋지게 소화하며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3

김은미 총장, 한국인 최초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 임명

김은미 총장이 한국인 최초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유엔여성기구는 1월 29일(월) “성평등 증진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에 걸쳐 폭넓은 연구와 정책자문을 수행한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을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친선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유엔여성기구는 “국제개발협력학의 선구자인 김은미 총장은 한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성과 여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고 교육, 경제, 건강, 평화 안보 분야에서의 권익 개선에 이바지했으며 연구와 정책 자문을 통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전 세계 여성의 권익 증진에 힘쓰도록 기여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여성기구의 친선대사는 각 분야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유엔의 미션을 홍보하는 저명인사로, 글로벌 친선대사로 는 앤 해서웨이, 니콜 키드먼, 엠마 왓슨 등이 있었으며 김은미 총장은 한국인이자 학자 최초로 대한민국 초대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모교 제17대 총장이자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은미 총장은 2009~2013년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사업)에 선정되어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에 대한 국제사례비교연구’를 주제로 한국과 세계의 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하며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로부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제도·정책·주요 섹터 등을 연구하여,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국·영문으로 발표했다. 2013년부터 세계적인 자선단체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연구비를 국내 대학 최초로 지원받으며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분야인 국제보건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여성과 소녀건강 분야로 연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녀와 여성

건강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도 연계하여, 전세계적으로 열악한 소년건강·소녀교육·소녀권익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교육·사회공헌 활동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제출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공동저자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2016년 선정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평등, 특히 젠더 불평등 해결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와 프로그램도 다수 진행해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 공무원을 교육하는 이화-코이카(Ewha-KOICA) 국제학 석사학위 과정을 설립·운영했으며 이화의료원 글로벌소녀건강연구원 원장을 맡아 개발도상국의 여성과 여아의 보건 문제를 연구했다.

김은미 총장은 향후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여성기구의 업무 범위인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폭력 근절 △평화·안보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알리아 엘-야시르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한국인 최초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된 김은미 총장



지역사무소 소장은 “김은미 총장을 대한민국의 첫 친선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유엔여성기구가 성평등센터를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김은미 총장이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함께 힘써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총장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기에, 유엔여성기구의 대한민국 친선대사로 임명되어 영광이다”라면서 “국제협력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엔여성기구의 소임에 뜻을 함께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서울 종로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에서 개최된 김은미 총장 친선대사 임명식에는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국내 최초로 여자대학에 인공지능(AI)대학을 설립한 모교의 AI 연구와 교육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AI에 젠더 감수성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과 응용에만 국한된 AI가 아닌 사회적 규범과 책무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AI 구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여성의 과학기술(STEM) 분야 진출이 더 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동의하며 여성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 힘을 합칠 것에 공감했다.

4

모교, 아산나눔재단과 기후테크 창업가 육성에 앞장

모교와 아산나눔재단은 2월 27일(화) 본관에서 아산나눔재단과 기후기술 창업가 육성사업인 ‘이



김은미 총장(왼쪽)과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

화-아산 유니버시티(Ewha-Asan UniverCT, University×Climate Tech)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테크 청년 창업가 육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산 유니버시티 사업은 대학교(University)와 기후테크(Climate Tech)의 합성어로, 점차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역량,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후기술 창업가를 육성하고자 아산나눔재단이 2023년부터 추진해 왔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모든 기술을 망라한 개념으로, 향후 10년 이상 유망한 미래기술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모교는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카이스트와 함께 2기 협력 대학으로 신규 선정됐으며, 향후 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아 모교 창업지원단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교수진 15명의 참여로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모교는 학부에 기후테크 창업트랙을 신설하고 대학원에는 기후테크 창업설계제도와 장학금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기후테크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후테크 창업팀’을 발굴, 기후테크 및 창업 전담 교수의 지도하에 아이디어 고도화에서 실전 창업 도전은 물론 시제품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기후테크 창업가 양성

에 박차를 가한다. 여기에서 발굴된 창업팀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학 통합 데모데이'에 출전,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은미 모교 총장, 신경식 연구·대외부총장, 이준성 산학협력단장, 김상준 창업지원단장, 박선기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민배현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김은미 총장은 “본 사업은 이화여대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창업인재 육성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화여대와 아산나눔재단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인식이 확산되고 기후테크 창업이 확대되어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 사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는 “기후테크 분야 창업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화여대와 이번에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 기업가정신을 갖춘 우수한 기후테크 청년 창업팀이 다수 발굴되고 나아가 이들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교는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의 비전하에 기후·환경 분야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7년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을 신설하고,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인 기후·환경변화에측연구센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우수한 예비창업가를 발굴하

여 기후테크 분야 산업을 선도하며 ESG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5

2024 새로워진 이화 캠퍼스

모교는 2024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강의실 및라운지 등 교수·학습 인프라를 개선하고, IT 서비스를 개편하는 등 스마트한 캠퍼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현주)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습활동과 상호작용, 미디어 활용이 가능한 유연학습공간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방학에는 약학과 국제교육관에 새로운 'Ewha Learning Space'를 오픈했다.

약학관 휴게실(A동 109호)은 아늑하고 생기 있는 EWha Learning Space로 새롭게 단장했다. 반지하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층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야 확보 가능한 가구와 라인 조명 및 개별 조명을 설치해 공간의 개방감을 최대화했다. 또한, 공간을 1인 학습공간과 그룹 스터디존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 스

교육관 B동 첨단강의실



마트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자를 고려해 콘센트, 무선충전 등 전원 이용이 쉽도록 했다.

국제교육관 열람실(1203호)도 노후한 설비를 건너내고 깔끔하고 편리한 EWha Learning Space로 탈바꿈했다. 개인 학습이 가능한 1인 학습공간과 그룹 활동을 위한 그룹 스티디존으로 분리해 구성하고, 그룹 스티디존에는 바 테이블을 배치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글라스보드 및 게시판도 설치해 활용할 수 있다. 휴게 공간은 인조식물로 구분하여 아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구역에 전원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했다.

한편, 교육관 강의실은 첨단·ALC 및 가변형 강의실로 새롭게 태어났다. 교육관 A동 414호는 일체형 책걸상 및 강사추적카메라 시스템, 벽면 글라스보드 등을 설치해 자유로운 대형 변동이 가능한 능동학습강의실로 변신했다. 교육관 B동 154호에는 교내 강의실 최초로 DID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다 선명한 화질의 듀얼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수자 화면 공유는 물론 학생 개인 디바이스도 미러링이 가능해 더욱 편리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을 지원한다.

스마트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한 서비스·인프라 관련 사업들도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교육 혁신 및 학생 미래설계 지원을 위해 첨단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정보통신처(처장 박형근)는 2월 28일(수) 모바일학생지원 시스템(이화앱)을 오픈했다. 2021년에 오픈한 이화앱을 다양한 학생 생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헤이영 캠퍼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건물 출입 지원과 채팅 및 커뮤니티 기능 등을 탑재했다. 스마트폰 기종별로 NFC/블루투스로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3월 중 대강당 채플 출석 체크에 이용할 수 있으며, 4월부터는 학관, 이화·포스코관 등 강의가 많이 배정되는 주요 건물 출입시에도 사용하고 순차적으로 대상 건물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처는 이화앱 오픈을 시작으로 지능형 학사 지원 시스템 'E-벳', 메타버스 캠퍼스, 이화 지식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학생의 소속감 강화를 위해 ewha.ac.kr 계정의 메일 ID도 발급한다. 신규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24학번 신입생은 2월 27일(화)부터 신청 가능하며, ewhain.net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재학생들은 3월 4일(월)부터 유레카 통합행정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 생성한 ewha.ac.kr 계정은 졸업 후에도 사용 가능한 만큼 이화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이화 네트워크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졸업 후 2년 이상 메일 미사용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며, 휴면계정 전환 후 1년 지나면 계정이 삭제된다.

이외에도 방학 중 무선네트워크 사용률이 높고 강의실이 많은 건물(ECC, 이화·포스코관, 학관, 신공학관, 아산공학관, 종합과학관A·B·C·D, 이화·신세계관, 중앙도서관)과 기숙사(한우리관)의 교내 무선네트워크 속도 개선 및 동시접속자 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작업이 진행됐다. 또한 늘어나는 무선네트워크 용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무선인터넷 회선을 각각 10GB로 증설했다. 중앙도서관(관장 정은경)은 기존의 분관대출서비스를 ECC YBM 열람실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분관대출은 본인이 지정한 인수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캠퍼스 내 접근성이 높은 ECC 열람실에서 자료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총동창회 후원을 모십니다



총동창회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는 이화동창 여러분께 총동창회 후원이사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후원이사는 2년 임기이며 회비는 연 100만원(이상)입니다.

총동창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바탕으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모교발전기금 전달, 각종 사업(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동창의 날 기념행사 및 합창제,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빛나는 이화인' 및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대바자회, 국내 및 해외 지회 순방,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 '이화인의 밤' 행사 개최, 《이화동창》 회보 발간) 등을 통해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종합대학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화, 이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의 주인이자 힘의 원천은 바로 '이화동창'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동창으로서 후원이사 가입을 통해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회장 _ 임복희(행정 93)

학장 초청 오찬 겸 간담회

1월 24일(수) 오전 11시 30분, 한남동 일상담미에서 사회과학대학 차미경(사회 84) 학장 초청 오찬 겸 간담회가 열렸다. 사회과학대학의 강민아(영문 88) 행정학과장, 정연경(문정 85) 문헌정보학과장, 유승철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장, 김민지(사회 02) 사회학과장과 각 과 동창회장 이해경(정의 88)·임복희(행정 93)·김노미(문정 88)·오기에(커미부 85)·김정진(사복 80)·나현정(심리 91) 동창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차미경 학장의 주재하에 향

사회과학대학 학장 초청 오찬에 참석한 동창들



후 사회과학대학 발전을 위한 모교와 동창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사회과학대학 동창회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뜻으로 1,000만 원의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이 후원금은 포스코관 건물 내 재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 '애플라운지(Apple Rounge)'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연과학대학

회장 _ 황복기(화학 83)

자녀와 함께하는 김장 체험 행사

2023년 11월 25일(토), 경기도 양평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김장 체험 &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회활동과 육아 등으로 동창회 활동에 참석이 힘들었던 젊은 동창들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진행하였으며, 초·중등 자녀와 함께 참여해서 자녀와의 행복한 추억도 쌓고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1부는 자연과학대학 동창답게 지시약이나 산화환원 시연과 함께 김장 관련 퀴즈를 진행한 후, 소금물을 전해질로 이용하는 전지 만들기 실험체험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열심히 무채를 썰고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김장을 담그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수육에 곁들여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다. 젊은 동창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21명의 동창과 자녀들이 참여하였는데, 참여 인원은 적었으나 웃음이 가득한 행사로 만족도가 높았다.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자녀가 집에 돌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는 후기도 들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활동과 육아로 바쁜 젊은 동창들에게 동창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동창 간의 유대를



자녀와 함께 김장 체험 행사에 참석한 자연과학대학 동창들

끈끈이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김장 체험에 참여한 동창들의 기부와 지난 10월에 진행된 야유회에 참석하였던 동창들의 기부도 십시일반 더해져서 이대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총 30가구에 10kg씩 총 300kg의 김치를 기부하였다.

의과대학

회장 _ 임선영(의학 82)

2023년 송년회 개최

의과대학 동창회는 2023년 12월 2일(토) 오후 4시,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20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2023년도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송년회장 입구에서는 EMC(이화의의료봉사단)를 위한 바자회가 펼쳐졌고, 드레스 코드에 맞춰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에 참석한 의과대학 동창들



RED의 물결을 이루었다.

1부는 이대 대동맥혈관병원 송석원 교수의 강의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고, 2부에 임선영 회장은 동창에게 버팀목이 되는 동창회가 되겠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3부는 의대 동창으로 이루어진 이향합창단 공연, 그룹 다섯손가락의 '비틀즈 공연' 그리고 즐거운 행운권 추첨으로 이어져, 저무는 해의 평화로운 마무리와 다가올 새해의 덕담을 나누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간호대학

회장 _ 변은경(간호 83)

2024년 간호대학 동창회 신년 모임

1월 16일(화) 오후 12시 캔싱턴 호텔에서 제8회 간호대학 동창회 신년회가 개최되었다. 신년 모임에는 이경혜(간호 68)·이자형(간호 70)·이광자(간호 71) 명예교수, 중경회장 및 간호대학 교수, 이화여대부속병원 부원장, 그리고 동창회 임원을 포함하여 21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대학 및 목동병원, 서울병원의 전년도 활동을 보고하였고, 간호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2월 20일(화) 오후 3시 간호 메달 수여식이 모교

신년회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이삼봉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 메달 수여식은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서약하며 간호사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자리이다. 제66기 졸업생을 축하하기 위해 변은경 회장, 이자형 명예교수와 교수, 학부모 등 152여 명이 참석했다.

김석선(간호 97) 부학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강윤희(간호 94) 학장의 인사말, 변은경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학사보고, 간호 메달 수여, 나이팅게일 선서, 동창회장상 시상 등이 이어졌다. 모든 신입 동창들에게는 선배 동창들이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입 동창들을 격려하며 간호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약학대학

회장 _ 황미경(약학 86)

제5회 신입 동창 환영회

2월 13일(화) 오후 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제75회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순서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색소폰 콰르텟 S-With와 함께하는 희망음악회가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환호를 자아냈다. 또한 손정민(제약 07) '모두의 약국' 대표와 송경령(제약 89) 전 노바티스 전무가 특별 강연을 통해 새로이 약사 직능에 뛰어드는 신입 동창들에게 이화인의 자부심과 노하우를 전한 시간이 되었다. 3부에서는 신입 동창인 약학과 75회 창립 총회가 진행되어, 회칙이 통과되었고 새 임원이 선출됨으로써 환영회 순서를 마쳤다. 이날 신입 동창들에게는 약대 동창회와 개국 동문회에서 마련한 작은 선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물과 함께 Powerful Alumni 명단을 전달함으로써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입 동창 환영회는 매년 2월에 진행되며 이 행사를 통해 졸업생들이 모교와 동창회에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게 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제약학과는 약학과와 통폐합하는 과정을 겪어서 지금은 제약학과 후배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도 1978년에 졸업한 동기들은 꾸준히 제약학과 동창 모임을 해오고 있다. 입학 후 50년 동안 이화인으로 긍지를 잃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생활인으로, 종교인으로, 전문인으로 일해 왔고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동창들도 있다.

고동선(이하 모두 78·김송희·문희주·박영자·손무인·윤여선·윤혜령·이영희·이정자·이형옥·조경희·조애수·조영상·조현숙·홍숙희 동창 이렇게 15명이 격월로 첫 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 서울, 분당은 물론 인천, 일산, 춘천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꾸준히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약학대학 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제약학과 1978년 졸업 동창들



그간의 소식 주고받으며 친목을 다져나가고 있다. 여기저기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손주들 자랑해 가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동창들이 아름답고 예쁘다. 소통을 방해하던 코로나19 시대도 끝났고 앞으로 동창회 모임과 행사에도 더 열심히 참석하려고 다짐하고 있다.

생활환경대학

회장 _ 우미형(의직 77)

아령회 임원 워크숍

1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타보르산 영성의 집에서 아령회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 이사장인 전성결(가정 61) 동창이 제공한 멋진 장소에서 진행한 워크숍에는 우미형 회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임원이 참석하였다.

우미형 회장의 인사말과 전성결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 이사장의 인사말, 손정미(식영 82) 아플리에 가원 대표의 '올드 팝&가원 패션쇼' 행사 제안 발표도 있었다. 이후 아령회 야유회 등 아령회 발전과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좋은 장소에서 맛난 음식과 함께 1박 2일 동안 친교의 시간을 나누며 아령회 임원들이 좀더 가까

워크숍에 참석한 아령회 임원들



워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디자인대학원

회장 _ 김곡미(디대원 93)

2024년 GSD 특별전시회 성황리에 개최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디자인대학원 동창회 주관, BEYOND SERVICE 주최로 열린 2024년 GSD 특별전시회가 E&L 갤러리(대표 유성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디자인대학원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 및 졸업생 13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김곡미 회장은 "다양한 전공별 특징을 보여 준 2024년 특별전시회는 차별화된 디자인대학원만의 강점"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그룹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넓히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모교 디자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했다. 디자인대학원 창립 40주년부터 시작된 작품전시회는 모교 디자인대학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GSD 특별전시회에 참석한 디자인대학원 동창들



과(학부) 소식

중어중문학과

회장 _ 송진영(90)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 선출

1월 13일(토) 낮 12시에 모교 진선미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중어중문학과 동창회가 주관한 학관 리모델링 기부 참여, 과방 새 단장 물품 기증, 후배사랑 장학금 등 사업보고와 함께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했다.

또한 송진영 동창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학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언주(89) 회장, 김의정(89) 부회장, 김영미(89) 총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중어중문학과 동창들



불어불문학과

회장 _ 송기정(80)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

2023년 12월 20일(수) 리베라 호텔 로즈 홀에서 멋지고 낭만적인 연말 모임을 가졌다. 불어불문학과 아미회 모임은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행복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연말과 총회에는 더 많은 선후배들이 모여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송기정 현 회장이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을 한 결과 이번 연말 모임에는 이전보다 많은 후배들이 참석하여 더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2024년 불어불문학과 총회, 독서와 상송 소모임,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또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선후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연말 모임에 참석한 불어불문학과 동창들

독어독문학과

회장 _ 박지나(90)

송년회 개최로 친목 도모

2023년 12월 28일(목) 강남 노보텔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2회부터 57회까지 독어독문학과 선후배



송년회에 참석한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동창들이 참석해 2023년의 근황을 서로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2024년 1월 4일(목) 서울 안다즈 아츠카페에서 회장단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동창회의 기록이 담긴 여러 자료를 전달하였고 '동창의 날' 행사 준비, '올해의 이화인' 선정 절차, 바자회를 위한 준비사항 등에 관한 정보도 전달했다.

사학과

회장 __ 최유리(84)

간사회에서 동창회 활성화 방안 논의

2023년 12월 21일(목) 인사동 뉘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간사회를 열었다. 송년회를 겸한 이 자리에는 강추위가 몰아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후배가 참석하여 간사회의 여러 활동을 돌아보고 간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2024년 동창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서는 사학과 동창들의 온라인 만남의 장으로 사학과 밴드를 운영하여, 동창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우회보》와 동창회 행사 사진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모아 서로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4년 2월에는 동창회 임원진들이 만나 사학과

동창 밴드에 공유할 자료수집 현황 및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여러 방안과 상반기 간사회 및 답사 일정 등을 논의하며 2024년 사학과 동창회 모임을 계획하였다.

사회복지학과

회장 __ 김정진(80)

비대면으로 열린 총회

2월 1일(목) 오후 7시 사회복지학과 동창회 이사회 및 총회가 비대면 줌으로 열렸다. 총회에서는 2023년 보고와 2024년 계획, 동창 소식 나눔 등이 이루어졌다.



줌(Zoom)으로 열린 총회에 참석한 사회복지학과 동창들

물리학과

회장 __ 이정신(89)

2023년 물리학과 송년의 밤 개최

2023년 12월 12일(목) 광화문 신라스테이에서 2023년 물리학과 송년의 밤이 열렸다. 이날 8기 동창에서 22학번까지 60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였고, 29기 이정신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송년의 밤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8기 김경자(68)·나수복(68) 동창의 장학금 기부로 김유빈(21학번)·반지민(22학번)



송년의 밤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후배가 장학금을 받았다.

많은 동창이 행사를 위해 경품을 기부하였고, 이 기부로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축하 공연, 단체사진 촬영, 게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동창들의 환호와 함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양화과

회장 _ 송은주(86)

신년 임원 회의와 산지갤러리 개관전 축하

1월 15일(월) 임원들은 올해 서양화과 행사와 선후배의 만남, 동창회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년 임원 회의를 가졌다. 2023년 10월, 수차례 임원 회의를 통해 추진된 한국과 미국에서의 서양화과 전시회는 132명의 작가 참여, 4개의 전시장에서 개

산지갤러리에서 관람 중인 서양화과 동창들



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줬다.

올해는 상반기에 있을 야유회 행사 진행 준비와 '올해의 이화인' 선정, 조형예술대학 비전이화 전시 축하, May Day 전시행사, 실기실 오픈 스튜디오 참여, 각 동창 개인전, 단체전 참여 등 많은 동창과 선후배를 위해 임원들의 활약을 준비하며 다짐하였다.

서양화과 동창들이 개인전, 단체전, 아트페어 참여 등 갈수록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 임원들이 이를 지원하고자 임기 시작 2023년 초부터 SNS를 개설하여 홍보와 아카이브로 활용하고 있다.

서양화과 동창들은 전시라는 구심점을 통해 많은 동창들이 연결되고 있다. 현재는 300여 명의 동창이 단체 대화방으로 연결되어, 각 개인전과 수상 소식, 아트페어 참여 소식 등을 나누고 있다. 특히 해외 동창들의 개인적인 소식과 전시회 개최 등 실시간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 캐나다, 프랑스의 전시 소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임원 회의 장소는 최지인(99) 동창의 삼청동 산지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임원들은 산지갤러리 개관을 축하하고, 해외작가 전시회도 관람하였다. 산지갤러리는 국내 신진작가들을 발굴 지원하여 해외 아트페어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갓 졸업한 서양화과 후배들을 지원하여, 미술계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조소과

회장 _ 오주연(90)

정기총회에서 학창 시절 영상을 함께 감상

1월 25일(목)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

문화관 806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19대 운영위원과 임원진 및 동창들의 참석하에 2023년 감사보고와 회무·재무보고가 있었고, 2024년도 조소과 동창회 사업 계획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또한 2023년 ESAarts Award 결과 보고 및 이화조각회 신입 회원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24년 ESAarts Award와 제40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전시계획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이화조각회 정기전은 6월 이화아트센터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동창들의 대학 시절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경품 추첨을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의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는 심인자(74), 김영란(79), 이선화(81), 한정희(81), 김형주(84), 강선희(87), 강승주(87), 박영주(87), 방지희(87), 장희준(88), 호혜란(88), 오주연(90), 이영송(90), 전선영(90), 김연(91), 이윤정(91), 차안자(91), 김문정(94), 김양선(94), 신영지(94), 이은주(94), 정민희(94), 조은희(94), 이지은(97), 박은선(98), 원신혜(00), 이주연(00), 차경화(00), 허혜진(00), 이지윤(01), 박정윤(15), 박정향(15), 김보경(19), 도정윤(24) 동창이다.

2023년 10월 16일(월)부터 유튜브 채널 K-Contemporary Sculpture of EWHA를 통해 개최되었던 <2023년도 이화조각회 온라인 릴레이 전시 Part 2>가 12월 26일(화)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하며 3개월 동안의 전시를 끝마쳤다. 매주 회원 두 명의 작품세계를 보여 주는 개인 영상 전시에는 총 23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동창은 이종희(71), 신은숙(79), 이현숙(85), 최승애(85), 강선희, 강승주, 방지희, 정미숙(87), 호혜란, 김정연(89), 오주연, 김연, 이윤정, 이은이(92), 백인정(96), 박은선, 오수연(98), 윤수진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01), 장유정(02), 박정향, 송유나(17), 김보경, 김진선(19) 동창이다.

2023년 ESAarts Award 학부 전시그룹 수상팀(이주혜(23)·김은영(24) 동창, 염지민 재학생)이 2024년 1월 24일(수)부터 29일(월)까지 코사갤러리에서 '나무랄 데 없는 조각'을 주제로 작가별 다른 시선이 담긴 나무 작품들을 선보였다.

ESAarts Award는 조소과 동창회에서 해마다 몇 개의 팀을 선정하여 전시를 지원해 주는 Award로, 2023년은 세 번째로 진행된 행사이다. 해마다 학부생부터 졸업한 동창 전시팀에게 전시를 지원하여 선후배 간의 교류와 전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다.

섬유예술과

회장 _ 이상영(94)

예미회 감사 및 결산 보고

2월 15일(목) 오전 11시 청담동 스케줄청담에서 2024년 첫 섬유예술학과 임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상영 회장 이하 임원진 최유리(96)·안은선(07)·정현정(07) 동창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1년간 섬유예술학과(예미회)를 위해 봉사한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였으며,



예미회 임원진 회의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2024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동창회 준비와 형식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특히 딱딱한 총회 형식을 탈피하고 연령대별 동창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23대 임원진들은 예미회에 각 연령별 동창들의 참여와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월 19일(월) 오후 12시 수담 한정식에서 2023년 섬유예술과 결산 보고 및 활동과 회계 감사를 위해 역대 회장단 회의가 열렸고, 전영선(88) 감사, 박희전(90) 감사, 이상영 회장, 안은선 회계가 만남을 가졌다.

이날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는 다양한 논의와 함께 섬유예술과 동창회 형식을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파티 형식으로 바꾸고 젊은 동창 영입을 위해 MZ세대가 원하는 드레스 코드, 포토존 등을 만들어 즐거운 총회를 만들자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회장단은 젊은 동창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임원진들에게 고마움과 선배로서 칭찬과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앞으로 임원들이 이화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유예술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 선후배들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날 회장단 회의 참석자는 이효범(61), 김혜순(61), 장영란(77), 박정례(79), 봉지희(85), 박희전, 전영선, 이상영, 안은선 동창이다.

생활미술과

회장 _ 김수진(94)

2024년 첫 동창 임원회

2월 4일(일) 신사동 리마크스에서 2024년도 첫 번째 동창 임원회를 열었다. 김수진 회장 이하 임원진이 모두 참석하여 2023회계연도 감사 및 활동 보고, 그리고 2024년 계획을 준비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년의 결실을 나누며 상호 격려하고, 모교 후배들의 성장과 생미과 동창들의 교류를 위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며 한 해 동안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동창 임원회에 참석한 생활미술과 동창들

도예과

회장 _ 한주원(89)

정기총회에서 신입 동창 소개와 축하

2월 14일(수)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를 결산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이번 행사에 6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관심과 격려를 보냈다. 총 14명의 신입 동창을 소개하고 축하하였으며, 2023년도의 회원들의 활동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도예과 동창들

무용과

회장 _ 한명옥(79)

'이화 춤! 60년을 꽃피우다'

2023년 12월 23일(토) 오후 5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2층 남산홀에서 무용과 설립 60주년 기념 '2023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동창회 송년의 밤-이화 춤! 60년을 꽃피우다'를 개최했다.

무용과 동창회는 한 해를 마감하며 동창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매년 '무용과 동창회 송년의 밤'을 개최해 왔는데 2023년에는 특별히 무용과 설립 60주년을 맞아 '이화 춤! 60년을 꽃피우다'라는 행사명으로 진행하였다. 1부에는 60주년 기념 세리머니와 6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연간 활동 보고와 시상식, 후원금 전달식 등을 거행했으며, 2부 '어울림의 시간'에는 축하 공연과 장기자랑, 베스트드

무용과 설립 60주년 기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무용과 동창들



레서 선발과 시상, 경품 추첨 등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무용과 1기 졸업생(1967년 졸업)부터 55기(2021년 졸업) 졸업생까지 160여 명의 동창이 참석했으며, 지난 몇 년간 모아온 기금으로 모교 총동창회에 '무용과 발전기금과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아교육과

회장 _ 황혜현(90)

신년 하례식과 정기총회

1월 11일(목)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신년 하례식과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퇴직 은사와 선후배 동창들 간에 새해 인사를 나누고 동창회 소식 및 유아교육과, 부속유치원 소식을 듣고 졸업 10·20·30·40·50주년 동창 축하와 신입 동창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제16대 동창회 회계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김용희(89) 회장의 후임으로 황혜현 동창이 제17대 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부는 식사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 단체사진을 남기면서 마무리하였다.

1월 31일(수) 오전 11시에 모교 이화어린이연구원 사무실에서 신·구 임원들이 인수인계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김용희 전 회장과 전임 임원들이 2년 동안 헌신적으로 유아교육과 동창회에 봉사한 수고에 감사하고, 동창회 관련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였다.

제17대 동창회 신입 임원으로는 회장 황혜현 동창, 부회장 방은정(91) 동창, 총무 손수연(00) 동창, 회계 허가영(13) 동창, 서기 유한나(07) 동창, 부서



신년 하례식과 정기총회로 2024년을 시작하는 유아교육과 동창회

기 강민지(14) 동창, 감사 김혜수(90)·이순영(90) 동창, 선교부장 최혜영(89) 동창이 선출되었다. 앞으로 신입 임원들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봉사하여 이화 유아교육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 선배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수교육과

회장 _ 김은경(87)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2월 2일(금) 모교 교육관B 김애마홀에서 동창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열었다. 2024년 2월 졸업한 신입 동창회원을 비롯하여 특수교육과 동창 총 56명이 참석한 이번 동창의 밤 행사는 신입 동창 환영식과 정기총회, 친교의 시간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오랜만에 만난 선배, 동창들 간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동창의 밤 행사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동창들



가정관리학과

회장 _ 박응임(86)

이가회 임원 송년모임

2023년 12월 1일(금) 가정관리학과 동창회(이가회) 임원 송년모임을 반얀트리클럽 레스토랑에서 가졌다. 박응임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1년 동안의 이가회 활동을 돌아보며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4년 이가회 활동과 발전 방안에 대해 선배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임원 송년모임에 참석한 가정관리학과 동창들

의류직물학과

회장 _ 이현미(85)

ECC 삼성홀에서 동창회 총회 개최

2023년 12월 14일(목) 모교 ECC 삼성홀에서 동창

동창회 총회에 참석한 의류직물학과 동창들



회 총회를 개최했다. 역대 동창회장, 학과 교수 및 60여 명의 의류직물학과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에서는 EWHA WEST CAMPUS 건립기금 전달식도 가졌다. 홍나영(81) 교수 외 제자 등이 고(故) 유희경(가사 42) 교수를 기념하는 룸 건립을 위해 따로 1억 2,168만 원을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잠시 축소되었던 동창회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식품영양학과

회장 _ 김호연(88)

신년 하례식 및 임원 회의



신년 하례식 및 임원 회의에 참석한 식품영양학과 동창들

1월 17일(수) 시스트로에서 2024년 신년 하례식 및 임원 회의가 진행되었다.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호연 회장을 비롯 12명의 임원이 참석해 2022년과 2023년 동창회 활동보고와 김관지(93) 총무의 회계보고를 가졌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신임 회장으로 김수연(90) 동창을 선출했다.



남가주(LA) 지회

회장 _ 조혜진(장미 89)

팬데믹 이후에 열린 첫 연말 파티

2023년 12월 첫째 주에 LAX 부근 Hilton Hotel에

서 2023년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가주 동창회 연말 파티에는 13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바이올린 연주, 합창 공연 및 댄스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정현숙 전 회장의 이임사와 신임 조혜진 회장의 인사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매년 남가주 동창회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5명의 동창 자녀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2024년 1월에 신임 회장 및 임원진과 전체 단체

연말 파티에 참석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장들이 모여 2023년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2024년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 음악대학의 100주년 행사 관련 요청이 있어 현재 준비 중에 있고, 3월 2일(토) LA에서 동창 및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 기획과 이를 위한 기금 모임에 관해 논의했으며, 모인 금액은 장학금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뉴욕 지회

회장 _ 김영신(독문 88)

59주년 기념 연례만찬

2023년 10월 15일(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59주년 기념 연례만찬을 가졌다. '이화광장, 지금 우리!'의 제목으로 각자의 꿈과 2023년도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화 동창 및 이화의 사위를 포함해서 약 90명이 참석했으며, 프로그램으로는 모교 소식, 장학생 인사, 동창회 활동 및 소모임 소개 등이 포함되었다. 신지호(피아노 21) 동창의 연주와 김영순(무용 74) 동창이 이끄는 White Wave 무용단 공연이 있었고 남후남(약학 62) 동창의 선교 무용 공연도 있었다.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패셔니스타 경연대회에서는 유학과 취업에 대한 20대 동창의 꿈부터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화 연례 만찬에 꼭 참석하고 싶었

연례 만찬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다는 원숙자(가정 58) 동창의 꿈을 나누며 여러 세대의 이화인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1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단 발표가 있었다. 김영신 동창이 회장으로서는 새로운 임원단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 지회 동창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2월 3일(토), 설을 앞두고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맨해튼의 반주 유니언스퀘어 지점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며 약 90명의 동창이 참석했다. 이해경(음악 50)·장혜원(약학 50)·백낙정(피아노 59)·이희명(사학 59) 동창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20~30대 동창을 위해서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도 진행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동창이 참석했으며 동창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한 동창도 많이 있었다. 인사와 정담을 나누며 따뜻한 이화 울타리를 확인하는 만남의 장이었다. 특히 모임 후에 소감을 사진과 함께 공유한 홍선희(생명 12) 동창의 글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갭이 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화 가족의 힘을 확인했다.

멜버른 지회

회장 _ 윤숙경(간호 76)

보다 잦은 만남을 위한 소모임 제안

1월 25일(목) 2024년 첫 번째 동창 모임을 가졌다. 중국음식점 VIP Room을 통째로 빌려 오붓하게 13명의 동창이 모여 반가움을 나누었다.

동창 4명은 일찌감치 오전에 모여 골프 모임을 갖고 합류하였다. 골프에 진심인 동창들은 이화 골프 모임을 만들자고 적극 제안을 하였고, 대부분의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멜버른 지회 동창들

동창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도 챙기고, 보다 잦은 만남을 갖자는 취지였다. 이후 각자 3분 스피치로 그간의 소식을 전하였고, 동창회에 새로 들어와 평균 연령을 확 낮추어 준 김은총(성악 19) 동창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한편 오윤미(피아노 04) 동창이 3월 22일(금) Melbourne Recital Center에서 J&Y Piano Duo Concert를 갖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몬트리올 지회

회장 __ 김명원(수학 92)

부부 동반으로 연말 모임

2023년 12월 9일(토) 백희준(수학 83) 동창의 집에서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이번 동창회에서는 졸업 50주년을 맞이하는 임명애(국문 73) 동창이 선물과 함께 모두의 축하를 받았다. 또한 6년간 한국에서 지내며 공부한 동창 심란(Simran Priyanka·경영 18) 동창이 새로 참석하여 다들 반가이 맞이하였다.

한목소리로 부른 교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학창 시절로 돌아가게 하였고, 임명애 동창의 남편 김창익 장로가 식사 기도를 한 후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동창들은 오랜만에 각자 자기 소개, 학창 시절의 추억, 졸업 후 경험과 몬트리

올로 오게 된 계기 등을 얘기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항상 위트로 웃음꽃을 선사하는 이채화(무용 76) 동창의 진행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눠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동창들을 위한 포인세티아 화분과 함께 때마침 도착한 총동창회에서 보낸 동창 수첩과 달력 덕분에 모임이 더욱 따뜻할 수 있었다. 또한 몬트리올 지회는 올해도 몬트리올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미네소타 지회

회장 __ 김정은(체육 90)

미네소타 한인회 후원 결정

2월 17일(토) 한명자(국문 67) 동창을 비롯한 13명의 동창이 설날 맞이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Jang-mi Art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해 온 한지인(Brook Newmaster) 씨가 게스트로 참석해 간략한 입양 역사와 함께 지난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동창회에서는 Jang-mi Arts에 정기적인 후원과 함께 9월 한국 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미네소타 한인회 후원을 결정하였다.

미네소타 한인회는 2023년 9월 30일(토) Mall of

설날 맞이 모임에 참석한 미네소타 지회 동창들



America(Minneapolis, MN)에서 한국 문화 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시카고 영사관 존 최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미네소타 K-Pop 댄스 그룹인 MKDC, Jang-mi Arts의 화려한 전통 무용 등이 공연되었다. 한진혜(제약 74) 동창을 비롯해 6명의 동창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 이영완(정의 81)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기금 모금

2월 5일(토) 정기 월례 모임을 가졌다. 월례 모임에 평소보다 많은 40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준비 관련 소식을 나누었다. 참석한 동창들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후한 기금을 선뜻 내주어 감사했다.

총회 준비 얘기를 마치고, 영화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일부를 함께 관람하고 그 영화와 관련된 뒷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감흥과 배움의 시간이었다. 모임에 흥을 더하기 위해 '예쁜 신발 콘테스트'를 열어 치열한 경쟁 속에 1,2,3등을 가려서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는 즉석 'Walking

Show'를 연출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화인으로서의, 북가주 지회 동창으로서의 자부심과 용기를 다시 확인하였고,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었다.

시애틀 지회

회장 _ 이재경(과교 80)

지역사회에 기부금 전달

2023년 12월 송년회를 열고, 동창과 동창 가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 축하와 더불어 친목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재경 회장은 킬리만으로 등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 각기 다른 코스로 2015년, 2016년, 2023년 이렇게 3번 도전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한다.

연말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한인을 돕는 기금으로 2,000달러를 기부하였다. 이것은 박명호(정의 78) 동창이 1년에 두 차례 음악 강의를 열어 성금을 마련한 것으로, 올해 4월 12일(금)에는 쇼팽에 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통합 한글학교에도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워싱턴주 주립대학의 한국학과 재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1,000달러를 받은 Lucie Olson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월례 모임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2024년 1월 27일(토) 신년 하례회가 있었다. 참석한 동창들에게 2024년 동창회 행사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4월 1박 2일 레이니어 산장의 하이킹, 8월 여름 야유회,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등의 소식을 알렸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 _ 차희숙(체육 77)

새해 첫 정기 모임과 총회 개최

1월 14일(일) 한식당 청담에서 43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는 개회 인사와 기도 및 새 동창 소개와 생일 축하로 시작하였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회를 이끌어갈 신입 회장으로 차희숙 동창을 선출하였다. 신입 임원·고문·감사·이사장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선교부 조성숙(가정 64) 동창, 음악부 이인순(약학 69) 동창, 골프부 이인옥(가정 85) 동창, 친교부 최인옥(체육 87) 동창이 선출되었다.

또한 이사회가 다시 재개되어, 이사장으로 이인순 동창이 선출되었고, 37명의 이사들의 발족으로 활기차게 문을 열었다.

2부 순서로 점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선배 동창들은 친목을 서로 다짐하면서 정다운 시간

1월 정기모임 및 총회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을 보냈고, 2024년 동창 수첩과 달력을 배부한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폐회하였다.

오타와 지회

회장 _ 황명희(영문 93)

역대 최대 송년회

규모는 작지만 벌써 20년 남짓 되어가는 오타와 지회는 2023년 12월 16일(토) 박은경(장미 85) 동창의 집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번 모임은 감사할 게 많은 송년회였는데 무엇보다도 팬데믹 이후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동창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 18명의 동창이 참석했는데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어른 31명, 자녀 11명 총 42명이 함께한 역대 최대 모임이었다. 특히 동창회에 처음 나온 김혜영(심리 98) 동창과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간 후 오타와를 방문을 계기로 이번 송년회에 참석한 박성숙(관현 87) 동창과의 만남은 송년회를 더욱 따뜻하게 했다.

거의 매년 송년회 장소로 숲속의 집을 제공하는 박은경 동창은 이번에는 너무나도 멋진 포토존까지 마련해 연말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고, 바쁜 가운데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 음료, 디저트를 즐기며 오타와 지회의 훈훈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가족과 함께 송년회 행사를 진행한 오타와 지회



수 있었다.

2023년 한 해, 각 개인에게 와 닿는 '키워드 1분 스피치' 시간에는 많은 동창이 '나이 들'과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각자 속한 가정, 사회의 여러 분야, 다양한 공동체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과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우리 동창이 무척 자랑스러웠고,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이 들'은 단지 힘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모임 후 오타와 지회에서 준비한 떡국 떡과 참석한 아이들을 위한 한국 과자 선물 주머니를 가지고 귀가하는 동창들의 뒷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한편, 오타와 지회는 이화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화 밖의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국여성재단'을 매년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후원금을 보낼 예정이다.

울산 지회

회장 __ 서인교(심리 76)

서클댄스로 단합을 도모

울산 지회 총회 및 송년행사가 롯데호텔 페닌슬라홀에서 개최되었다. 울산 지역의 이화 동창 32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개회기도, 경과보고, 회계

송년행사에 참석한 울산 지회 동창들



보고,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찬 후 경품 추첨 및 다 함께 서클댄스 등으로 단합을 도모했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이지은(불문 96)

2024 이사회에서 장학금 운영계획 논의

2023년 12월 16일(토)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위치한 Westwood Country Club에서 'Magical Ewha 2023'이란 주제로 총회 및 연말파티를 개최하였다.

가면 무도회를 입장하듯 입구에 준비된 가면을 착용하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90명 이상의 워싱턴DC 지역 동창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23년 지회활동보고, 회계보고와 함께 2024년 차기 회장으로 이지은 동창을 인준하는 1부 총회로 시작하여, 2부 식사 만찬 중에는 2023년 지회 활동 비디오를 함께 감상하며 한 해를 되돌아 보았다. 이어진 3부 순서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창들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준비되어 세대를 아우르며 서로를 더욱 잘 알아가는 친목의 시간이 되었다.

12월 18일(월)에는 지역사회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워싱턴DC SE지역에 위치한 여성 홈리스 쉼터와 여성 재활 교육센터인 Calvery Womens Services를 방문하여 기부금과 함께 니팅 클럽에서 만들어 주신 목도리와 모자 등 따뜻한 겨울을 위한 선물도 함께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새해 첫 행사로는 1월 27일(토) 김성혜(융합보건 88) 이사장 자택에서 39명의 이사 및 임원진, 동창들과 함께 2024년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총회 및 연말파티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2023년 장학 사업 활동(모교 학생 2명, 하계 대학 학생 2명 및 지역사회 학생 2명)과 지역 비영리 기관들을 위한 기부 사업 활동 및 재정 내역 보고가 있었으며, 2024년 장학금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김성혜 현 이사장의 연임이 인준되었으며, 2025년 워싱턴DC 지역에서 개최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준비도 함께 논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탈리아 지회

회장 _ 박창성(식영 7)

한식당에서 설 명절 맞이 모임

1월 19일(금) 한식당 '이조'에서 2024년도의 신년 모임을 가졌다. 그날은 너무 포근해서 벌써 봄이 코앞에 다가온 것만 같았다. 2023년에는 김정임(대학원 88) 동창이 회장으로 많이 수고하였고, 올해는 박창성 동창이 회장 일을 맡게 되었다.

박창성 회장의 초대로 한식당에 모여서 맛깔스러운 음식을 나누면서 다가올 설 명절을 미리 축하하는 기회도 가졌다. 설에 한국에까지 다녀오기는 힘들지만 동창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근황을 들으니 푸근한 명절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더욱더 좋았다.

우혜경(성악 11) 동창은 지난해 밀라노에서 개최된 콩쿠르에서 만점 1위 입상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앞으로 이탈리아 각지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 연주할 계획이고, 2월에는 스페인 Leon에서의 음악회에도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박송이(대학원 10) 동창은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오페라 코칭> 과정에 등록하여 새롭게 공부에 도전하고 있다. 가정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배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 이화인의 표본이 되어 주고 있다.

작년에 깊은 감명을 주었던 보르게제 미술관 관람 같은 흥미 있는 문화 모임을 2024년에도 준비하기로 기약하며 모임을 마쳤다.



신년 모임에 참석한 이탈리아 지회 동창들

일리노이 지회

회장 _ 서석영(정외 94)

첫 정기총회 개최

2023년 12월 17일(일) 정식 인준이 된 일리노이 지회는 2023년 가을부터 로고와 배너 제작, 도메인 구입 및 웹 사이트 업데이트, 비영리 단체 등록과 은행 계좌 개설 등 지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들을 임원진과 이사회가 모두 합심하여 분주히 추진해 왔다. 2024년 2월 17일(토) 시카고 다운타운의 Wolf



지회 인준 후 첫 정기총회에 참석한 일리노이 지회 동창들

Point West의 46층 Sky Lounge에서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 15명의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축하 동영상으로 업무 보고 및 2024년 지회 행사 및 사업계획을 알리고, 폐회 후 푸짐한 뷔페 식사와 경품 추첨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첫 걸음마를 시작한 일리노이 지회는 지역 동창들의 친목 도모 및 재원 마련에 힘쓰고, 지회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야외 가족모임, 온라인 강의 시리즈, 멘토링, 장학사업 등 다채로운 활동을 계획하고자 한다. 지회 행사와 활동 소식은 일리노이 지회 웹사이트(www.ewhaillinois.org)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지회

회장 __고화련(독문 69)

새해 첫 정기 모임과 제주도립미술관 방문

2월 28일(수) 한라수목원 근처 포도원 흑돼지에서 2024년 제1회 정기 모임을 가졌다. 전날 갑자기 영면에 든 이공희(가정 60) 동창에 대한 이운희(외국어교육 77) 동창의 추모 기도를 시작으로 2024년도 계획을 발표하고 식사를 했다. 동창들은 생전의

이공희 동창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면서 고인에 대해 애도를 하였다.

식사 후 제주도립미술관으로 이동해서 앙리 마티스와 라울 뒤편 전시회를 관람했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평생에 걸쳐 삶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표현한 작가 라울 뒤편의 작품을 오디오 도슨트로 배우 박보검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했다. 바다를 사랑했던 작가의 항해에 대한 기쁨을 제주에 사는 우리 동창들 모두 공감할 수 있었다. 파리 국제 박람회의 주제관에 그린 <전기의 요정>은 그 당시 가장 큰 유화작품으로,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전기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 110명을 작품에 그려내어 과학기술 발전에 경의를 표한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디어아트로 제작되어 상영되고 있었다.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야수파의 창시자 앙리 마티스의 대표작 <재즈> 원본을 포함한 8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앙리 마티스의 굴곡진 선을 강조한 여체 작품들에서 사용한 파란색은 시원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제주 바다와 하늘 또한 연상케 하였다. 관람을 끝낸 후 미술관 카페에서 고순현(제약 71) 동창이 후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각자 느낀 감상평을 나눴다. 관람하는 동안 두 작가의 빛과 색채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한 제주 지회 동창들



진주 지회

회장 _ 염선행(생미 83)

송년회를 통해 덕담 주고받아

2023년 12월 6일(수) 송년회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염선행 회장의 집에서 있었다. 20여 명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보내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2023년은 자녀들과 동창들의 경사도 많았지만, 대선배님과 부모님의 조사가 많았던 시기였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경험을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었다.

진주 지회는 2023년 7월 음대 후배들의 크로스 오버 앙상블팀 드오(De O)의 진주 연주회, 10월 염선행 동창의 12번째 개인전, 11월 김선미(독문 71) 동창의 사진그룹전과 김선희(서양 75) 동창의 진주 여류작가전, 12월 김혜원(중음 96) 동창의 여수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오르간 협연 등 다사다난했던 동창들의 행사에 함께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해주었다.

헤어지기 전에, 진주시를 위해 내조에 힘써 주는 정해임(경영 88)·오명옥(사학 90) 동창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창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진주 지회 동창들



토론토 지회

회장 _ 조혜라(영문 96)

신년 임원 회의와 햇불회 예배

1월 6일(토) 신년 임원 회의를 열었다. 임원 및 동호회 담당 동창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는, 동창회에서 진행할 행사들에 대해서 활기차게 의견을 나누며 멋진 한 해를 계획했다.

2월 24일(토)에 모인 햇불회 예배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즐거운 교제와 유익한 특강까지 즐거움이 가득했다. 예배에 참석한 20명의 동창들은 김수연(물리 86) 동창의 기도예에 마음을 모으고, 음악 동호회의 특송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최경자(영문 63) 동창의 설교 <살림>이라는 말씀으로 삶을 대하는 생각을 살피었다. 매순간 우리들이 숨 쉬고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서의 '살림'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참석하는 동창들이 각자 준비해 온 나물을 한자리에 나누어 먹는 '이화 비빔밥'으로 식사를 했다. 마침 정월대보름에 모인 햇불회라 비빔밥을 먹는 식탁이 더 즐겁고 풍성했다.

즐거운 교제에 뒤이어, 오성석 치과의사와 함께 한 <알아두면 도움 되는 치아 관리 상식> 특강은, 생활 가운데 흔히 발생하는 치과 질환을 예방하기

햇불회 예배 후 '이화 비빔밥' 시간을 즐기는 토론토 지회 동창들



위한 치아 관리 상식부터 임플란트에 관한 정보들 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치과 상식을 폭넓게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다.

3월 9일(토)에는 정기총회로 모여, 더 많은 동창들과 함께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며 친교를 나눌 예정이다. 특별히 50주년을 맞는 토론토지회의 2024년, 앞으로 계속될 동창회의 각종 행사들도 웃음과 보람이 가득할 것을 기대한다.

포틀랜드 지회

회장 _ 한나리(체육 92)

만장일치로 새 회장 선임

1월 25일(목) 신년 동창회가 있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독감과 감기로 중요한 선배 동창 세 명이 불참하였다. 서운한 마음으로 하루 속히 쾌차하기를 빌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된 동창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포틀랜드의 이상기온으로 정초부터 단전과 단수로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게도 동창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극복했음에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했다.

이번 동창회에서의 가장 큰 안건으로는 그동안 10년 넘게 회장으로 봉사한 김미진(도예 79) 회장

신년 동창회에 참석한 포틀랜드 지회 동창들



이 사임하고 후배 한나리 동창이 만장일치로 새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매우 활동적인 한나리 동창은 전체 동창회 때마다 MC를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포틀랜드 지회가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새 회장단 축하식 겸 봄 동창회를 5월에 가지기로 하고 동창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프랑스 지회

회장 _ 한연미(정외 90)

2023년도 정기총회와 재학생 방문단

2023년 12월 2일(토),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총 35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 오찬을 가졌다. 여러 세대의 동창들이 같이 어울린 가운데 동창 수첩과 달력 배부를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안부와 근황을 나누며 식사와 다과를 마쳤다.

박현선(의직 91) 회장의 진행으로 본 회의를 시작하여, 신입 동창들의 자기 소개에 이어 임원단의 2023년도 동창회 활동과 회계결산 보고가 있었다. 안건 토론 시간에는 고물가 시대에 동창회비를 인상 안 하고 동창회 모임을 차질 없이 운영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제안 및 개선점에 대한 전체의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임원단의 인사가 있던 후 한연미 동창이 차기 회장직을 이어가기로 하여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신입 회장과 수고를 같이 할 임원단(박지은(가관 96)·안정아(건축 06)·심해린(경영 14)·윤유영(불문 16)·곽원경(경제 23) 동창)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동창회 친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

을 다같이 다짐하였다. 총회 참석자들은 프랑스 한인 사회 내의 최고의 대학 동창회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해산하였다.

2024년 1월 15일(월)에는 유럽의 국제기구 견학 일정으로 강민아(영문 88) 행정학과 교수의 인솔 하에 파리를 방문한 모교 재학생 해외학습방문단과 한식당에서 저녁 시간을 같이하였다. 현역으로 활동 중인 박현선(의직 91)·정순열(경영 06)·김서현(경제 12)·장윤희(영문 12)·이혜진(식공 13)·유채원(영문 18) 동창이 평일의 바쁜 시간에도 참석하여 각자의 사회 경험을 나누고 학부생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한 뜻깊은 자리였다.

1월 20일(토) 장옥희(심리 69입) 동창이 임원단으로 수고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파리 교외의 사택으로 점심 초대를 하였다. 신·구 임원단 9명이 참석하여 친정에 있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에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장 동창의 푸짐한 한식상과 함께 임원단 업무 인수인계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정기총회 및 송년 오찬에 참석한 프랑스 지회 동창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 조경숙(의학 81)

송년 모임에서 새 회장 선출

2023년 12월 16일(토) 항상 삶의 본이 되어 주는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김영애(국문 62) 동창의 집에서 동창회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화 사위 6명을 포함해 30여 명이 모여 화기에 애하게 미국 땅에서 이화 동산을 재현한 하루였다. 양경자(성악 65) 동창의 지도하에 매주 연습 시간을 갖는 이화 필라중창단의 연주는 성탄절을 맞는 기쁨을 고조시켰다.

애찬 후 김선주(국문 72) 동창이 이끄는 사자성어 게임은 많은 웃음을 낳았고, 지난 6월 피크닉 때에 이어 이번에도 상은 오경희(사회과교육 83) 동창에게 돌아갔다. 마무리 순서로 총회를 열어 2023년 동창회 활동과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2024년 새해를 이끌 새 회장 선출이 있었다.

2024년 2월 3일(토) 뉴저지 체리힐에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신임 임원단으로 조경숙 회장, 박윤옥(간호 75) 회계, 정혜진(무용 00) 총무의 소개가 있었고, 2년간 수고한 오성실(영문 68) 전 회장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 소개와 광고 시간 후 동창회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동창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임원단들은 이 의견들을 수렴하여 신년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첫 프로젝트는 젊은 동창들을 위한 소그룹 만들기로, 3월 초에 첫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휴스턴 지회

회장 _ 양영희(주소 93)

미술 산책 모임과 구정대잔치

1월 26일(금) 문희채(영문 72) 동창의 집에서 '미술 산책 Promenade Artistique' 모임을 가졌다.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이 모임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양영희 회장의 미술사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창들은 미술사 강의를 듣고, 함께 준비해 온 맛난 음식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책과 그림, 만남과 나눔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휴스턴 지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2월 9일(금) '휴스턴



'구정대잔치'에 참석한 총영사, 노인회장, 구세군 사관과 함께

이화 구정대잔치'를 정성껏 마련했다. 올해 준비한 140인분의 모든 음식을 동창들의 손맛으로 완성하여 "음식이 맛있었다"는 많은 칭찬을 받았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에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다. 올해도 정호영 휴스턴 총영사가 참석해 주어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동창이 펴낸 새 책

나이 드는 데도 예의가 필요하다

고광애(사학 59)

고광애 지음 / 바다출판사

고광애 동창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네 삶에 유연함과 유쾌함을 더할 인생 가이드 『나이 드는 데도 예의가 필요하다』를 출간하였다. 오래오래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법에 대해 꾸준히 글을 써오고 있는 고광애 동창은 『마흔과 일흔이 함께 쓰는 인생노트』(공저), 『나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실버들을 위한 유쾌한 수다』 등의 저서가 있다.



얼굴을 마주 보고

권민정(사복 75)

권민정 지음 / 소소담담

수필가 권민정 동창이 수필선집 『얼굴을 마주 보고』를 펴냈다. 제5회(2023) 수필미학문학상 수상 작품집이다. 등단 20년의



중견작가인 권민정 동창은 소소한 일상 생활에서부터 사회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백하고 사실적인 문체로 담았다. 권민정 동창은 지난해 아르고 창작지원금 수혜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저서로 수필집 『은하수를 보러 와요』, 『시간 더하기』가 있다.

아이 캔 두 이모

김우남(김희숙·정의 81)

김우남 지음 / 산지니

소설가 김우남 동창이 단편집 『아이 캔 두 이모』를 펴냈다.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이모의 삶을 담은 『아이 캔 두 이모』,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는 수의사가 주인공인 『해 뜰 날』 등 우리 인간사의 따스한 일상과 온기를 지닌 4편의 단편소설이 담겨 있다. 김우남 동창은 직지소설문학상, 노아중편문학상, 이화푸른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아이 캔 두 이모』는 2023경기문화재단 출판지원 선정작이다.



고(故) 손명순(약학 53) 동창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동창이 3월 7일(목)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5세. 5일간 가족장을 치른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손 동창은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 2남 3녀가 있다. 손 동창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15년 11월까지 64년간 고락을 함께하며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켰다.



고 손명순 동창

고(故) 광라분(박분이·사복 63) 동창

(사)씨알여성회 대표 광라분 동창이 2023년 12월 22일(금) 퇴촌면 로하스한울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2002년 환갑이 넘은 나이에 (사)씨알여성회를 설립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과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광라분 동창은 모교 부속병원에 시신을 기증하였다.



고 광라분 동창

고(故) 이규도(성악 63) 동창

3월 13일(수), 모교 명예교수이자 '원조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이규도 동창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이규도 동창은 세기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가 "너는 내 학생"이라고 꼭 집어 제자로 삼은 성악가로, 오페라 여주인공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오페라 무대



고 이규도 동창

를 누빈 프리마돈나다. 이규도 동창은 세계적 권위의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차이콥스키 콘서바토리)에서 외국인으로서 사상 최초의 명예음악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을 수상했다.

조정현(생미 63) 동창

2023년 11월 24일(금)부터 2027년 1월 10일(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 자미술관 소장품 상설전 '현대 도예-오디세이'에 모교 명예교수 조정현 동창이 자료를 협찬하였다. 조 동창은 한국현대도예가협회 원로작가 아카이브 영상 자료를 협찬하여 '한국현대도예 작가 아카이브' 섹션에서는 영상자료를 편집 및 활용하여 전시하였다.



조정현 동창

이현숙(의학 64) 동창

이현숙 동창이 제11회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터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화의대 동창회는 70세 이상의 동창회원 중 학술, 진료, 봉사 활동으로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동창에게 매년 1회 상패와 금메달을 수여한다. 이현숙 동창은 1998년 이현숙 개인 장학금을 학생에게 처음 지원하며 이화의대 동창회 장학위원회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통해 의료봉사와 후원을 실천하였다. 시상식은 3월 9일(토)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이화의대동창회 제58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되었다.



이현숙 동창

이원영(생미 68) 동창

미국 플라워 디자인 분야의 '오스카 상'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플라워 디자인협회(AIFD)의 2023년 특별 공로상(the Award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Floral Industry)을 수상하였다. 협회 역사상 한국인으로 첫 수상이며, 꽃과 소품을 콜라주하여 플라워 아트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영 동창

유진희(유교 69) 동창

2023년 12월 12일(화) 유진희 동창이 모교에 '유아교육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유진희 동창은 이화부속유치원의 원감과 한국어린이육영회(현 아이코리아) 부설 유치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유진희 동창

이종희(조소 71) 동창

2023년 9월 11일(월)부터 10월 1일(일)까지 '마음의 소리'라는 주제로 Gallery Helen A에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입체 작품과 부조작품으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종희 동창

이영주(의학 72) 동창

이영주 동창이 '이화 웨스트 캠퍼스(Ewha West Campus) 건립기금'으로 10억 원을 쾌척했다. 모교는 1월 10일(수) 이영주 동창을 초청해 기념전담식을 개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새로 지을 '이화 웨스트 캠퍼스' 내 '이영주 강의실(가칭)'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영주 동창은 모교를 비롯, 연세대,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인이사로 재임 중이다. 이 동창은 부군 하창화(주)한국백신 회장과 함께 이화의료원에도 고액을 기부하여, 이대서울



이영주 동창

병원 내 '이영주 홀'을 조성한 바 있다.

양승희(사학 73) 동창

양승희 동창이 글로벌 어린이재단 샌프란시스코 지부(GCF SF 지부)의 13대 회장으로 2024년 1월에 취임하였다. 1998년 설립된 GCF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으며, 24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 양승희 동창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회장으로 봉사하게 된다.



양승희 동창

이주영(영문 75) 동창

2023년 12월 27일(화) 남촌재단 고문 이주영 동창이 모교에 '남촌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남촌장학금'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따뜻한 품성을 갖춘 글로벌 여성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남촌재단의 뜻에 따라 2008년 신설됐으며, 꾸준한 기부로 현재까지 29명의 학생에게 13억 원 이상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주영 동창

장영란(섬예 77)·봉지희(섬예 85)·윤미경(섬예 85)·김유림(섬예 89)·전경화(섬예 89)·이혜원(섬예 96)·신지혜(섬예 02) 동창

(사)한국공예가협회 회장인 장영란 동창은 'The Grand Art Fair' 장신현 대표와 (사)한국공예가협회 간 MOU를 맺고, 그 일환으로 1월 26일(금)에서 28일(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열린 'The Grand Art Fair'에 봉지희(연세대 교수)·윤미경(한양여대 교수)·김유림(수원대 강사)·전경화(이대 강사)·이혜원(작가)·신지혜(이대 강사) 동창과 작가로 참여하였다. 'The Grand Art Fair'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예 작품을 비롯 공예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는



장영란 동창

한편, 판로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조윤라(무용 77) 동창

한국발레연구학회 이사장이자 충남대학교 무용과 명예교수인 조윤라 동창이 2023년 12월 28일(목) 개최된 '2023 한국춤평론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최장수 발레리나로 70세인 현재까지 토슈즈를 신고 공연하는 조윤라 동창은 1980년 모교 졸업생들에 의해 창단된 한국 최초의 대학동문 발레단 '발레블랑'의 살아 있는 역사라 불리며,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로예술가공연지원사업' 선정작인 <존재의 이유>(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내마음의 수채화>를 공연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조윤라 동창

최희봉(정외 80) 동창

최희봉 동창이 샌디에이고 미술관(SDMA) 최초의 한인 도슨트(Docent)가 되었다. 도슨트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전문 안내인으로, SDMA의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은 엄격하고 수준 높은 교육 과정으로 유명하다. 최희봉 동창은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월부터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여, 3월 3일(일)까지 열린 '한국채색화 특별전' 안내를 진행했다.



최희봉 동창

김은미(사회 81) 동창

김은미 모교 총장이 한국인이자 학자 최초로 대한민국 초대 유엔여성기구(UN Women)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모교 17대 총장이자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은미 총장은 공적개발원조(ODA)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고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



김은미 동창

며, 이 분야 연구로 세계 최대 규모 자선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2013년, 2016년, 2019년, 2023년 잇따라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활동을 펼쳤다. 아시아재단이 수여하는 2021 창린티엔 리더십상도 받은 김 총장은 향후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여성기구의 업무범위인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폭력 근절, 평화 안보,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정희(정외 83) 동창

전정희 동창이 전북여성가족재단 신입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1월 1일(월)부터 1년간이다. 전정희 동창은 2023년 11월부터 진행된 원장 공모를 통해 전라북도의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전정희 동창

조기련(서양 83) 동창

한옥사랑 인테리어 대표로 있는 조기련 동창이 설계 및 시공한 문화정원 아트홀 건물이 제8회 '서울 우수 한옥'에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선정되었다. 건물 3~5층 일부 한옥 오피스텔과 6층 한옥 사무실이 콘크리트와 같은 현대적인 건축 재료(일부 목재 사용)로 한옥 디자인을 느끼게 하는 건물이며, 한옥의 한식 목재 구조와 마감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평면을 'ㄷ'자로 구성하여 마당과 채를 배치, 한옥의 공간 구성을 잘 보여 주어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선정되었다.



조기련 동창

안수산(영문 84) 동창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0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안수산 동창이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유일한 한인 국제 공증변호사(Notary Public)

로 임명되었다. 안수산 동창은 현재 A&Y Legal 대표변호사로 민법, 상법, 부동산법, 가족법, 민형사소송 및 이민법등 다양한 법률분야를 소속 변호사들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 공증변호사(Notary Public)로 임명되어 Apostille, 국제 송사업무, 국제 공증및 인증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또한 멜버른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다양한 무료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안수산 동창

유경하(의학 84) 동창

제20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유경하 동창이 임명되었다. 세 번째 의료원장 임명이다. 임기는 2월 1일(목)부터 2027년까지 3년이다. 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 권위자로 손꼽히는 유경하 동창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또한 2020년부터 이화의료원장으로 재직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유경하 동창

이인혜(서양 84) 동창

이인혜 동창이 3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 서울 중

로구 인사동길에 위치한 갤러리인 사이트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초상화가 담긴 전시 '깊은 잠 그리고 기억의 방'을 열었다. 이인혜 동창은 사실주의 초상화를 통해 인간에게 내재한 고독, 외로움, 불안, 심적 고뇌와 번민을 그려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존하고 있거나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8인의 초상화 작품을 선보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위로를 전하고 역사를 반추해 평화를 말하고자 하였다.



이인혜 동창

조기숙(무용 85) 동창

모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기숙 동창이 대한무용협회 '2023 무용 분야 예술대상' 발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월 26일(금)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무용협회 제63회 정기 총회에서 열렸다. 조기숙 동창은 발레 대중화를 실현하며 발레 중흥의 기틀을 이끌어온 교육자다.



조기숙 동창

김인수(동양 86)·윤선홍(동양 88)·김선주(서양 89)·박가나(서양 89)·박은덕(서양 89)·양수균(서양 89)·한여옥(서양 89) 동창

3월 1일(금)부터 4월 30일(화)까지 전남 여수시 소재 아트디오션갤러리에서 이화여대 동문 초대전 '이화

이화퀵트

2023년 11월 7일(화)부터 11일(토)까지 모교 조형예술대학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이화퀵트(회장 고은경·물리 86)'의 여섯 번째 전시 '이화퀵트 전(展)-The Window of My Heart'를 가졌다. '이화퀵트'는 퀵트를 하는 이화인들의 모임으로 약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매해 전시회를 열고 있다.



2023 이화퀵트전

(梨花)가 열려 모교의 동양화과와 서양화과 동창 작가 7인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작품은 여수 디오션 호텔 1층 로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동문 초대전 '이화'

오영주(정외 86) 동창

2023년 12월 29일(금) 오영주 동창이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오영주 동창은 1988년 제22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개발협력국장, 주UN 차석대사, 주베트남 대사 등을 역임하며 35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해 왔으며, 외시 출신 여성 외교관 중 최초로 차관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오영주 동창

최인화(약학 86) 동창

한국로슈 전무 최인화 동창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정책 총괄에 임명되었다. 최인화 동창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공직약사로 시작해 보령제약, 태준제약을 거쳐 2001년 로슈에 입사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가(MA), 인허가(RA, Regulatory Affairs) 등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최인화 동창

강승주(조소 87) 동창

2월 21일(수)부터 27일(화)까지 일본 도쿄 우에노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에서 열린 제69회 도조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으로 외국인으로서 정회원이 된 강승주 동창은 한일도조교류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강승주 동창

김곡미(생미 87) 동창

김곡미 동창이 2023년 12월 27일(수)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2023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에서 도지

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곡미 동창은 충남도청 슬로건 광고홍보, 베이벨리 메가시티 등 충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큰 성과를 올리며 공공디자인 분야의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김곡미 동창

배경임(기독 87) 동창

은평구립도서관 '내를건너서숲으로' 도서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배경임 동창은 사단법인 더불어배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내를건너서숲으로' 도서관은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은평구에서 설립한 시문화 특화 도서관으로, 2021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우수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제9회 아름다운 이음 서울 평화음악회를 진행하여 서울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의미 있는 음악회 선물을 제공한 바 있다.



배경임 동창

최 선(제약 87) 동창

2월 25일(일) 모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최선 동창이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첨단 바이오 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최선 동창은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모델링 및 약물설계 전문가로, 세계 최정상급 학술지인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을 비롯해 유수의 학술지에 110편 이상의 국제 SCI급 논문을 게재했고, 2023년 12월에는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됐다.



최 선 동창

문혜성(의학 88) 동창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문혜성 동

창이 2023년 12월 27일(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혜성 동창이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로서 학술대회를 포함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 평가하는 등 연수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킨 공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문 동창은 2024년 1월 26일(금) 이대서울병원에서 로봇수술 2,000건 달성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로봇수술 2,000건 중 최고난도 수술로 알려진 단일공 수술이 1,566건(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1,120건)에 달한다. 문혜성 동창은 세계 최초 SP 단일공 로봇수술 최다 건수 기록을 인정받아 오는 6월 20일(목)부터 23일(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세계로봇수술학회에서 교육 강연을 할 예정이다.



문혜성 동창

박선희(장미-패션 88) 동창

2023년 12월 1일(금) 서울시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서울시 교육청 지원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꿈토틀링 3기 졸업식 및 패션쇼가 개최되었다. 이날 멘토로서 지난 3년간 지도했던 박선희 동창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12월 6일(수)부터 12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선아트스페이스에서 'Artist 3 Person Drawing Exhibition'을 가졌다.



박선희 동창

이상미(섬예 88) 동창

이상미 동창은 2월 14일(수)부터 18일(일)까지 미국 LA Convention Center West Hall에서 열린 LA Art Show와 2월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C홀에서 열린 WORLD ART EXPO 2024에 참가하였다. 활발한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작가로서 위상을 더 높이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미 동창

박은덕(서양 89) 동창

박은덕 동창은 2월 1일(목)부터 7일(수)까지 서울 방배동 소재 스페이스엠에서 'The Passage of Kairos'라는 타이틀로 여덟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스페이스엠의 23-24 공모당선전 전시로, 박은덕 동창은 2023년 이스라엘, 튀르키예 여행을 통해 찍은 사진들을 소재로 디지털 포토 콜라주 작품 20여 점을 전시했다.



박은덕 동창

송미령(정외 89) 동창

2023년 12월 29일(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농식품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다. 취임식은 2024년 1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송미령 동창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으로 농업·농촌 정책전문가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송미령 동창

이정원(조소 89) 동창

2023년 12월 6일(수)부터 16일(토)까지 '평안한 풍경'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DADO ART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정원 동창

최유진(문정 89) 동창

최유진 동창이 2월 13일(화)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관리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였다. 최유진 동창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최유진 동창

이수정(커미부 90) 동창

이수정 동창이 2024 영남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에 「코타키 나발루의 봄」으로 당선, 한국 문단에 정식 데뷔하였다. 시상식은 1월 16일(화)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수정 동창

조은희(식영 90) 동창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 조은희 동창이 2023년 12월 12일(화) 충북 농업기술원 제31대 원장에 취임하였다. 1990년 공직에 입문한 조은희 동창은 농촌진흥청에서 기술보급사업 기획, 농업재해대응과 농축산물 수급안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조은희 동창

류은주(약학 91) 동창

현 동아ST제약 미국 대표 류은주 동창이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코윈) 뉴욕 지회 신임 회장에 추대되었다. 임기는 2023년 7월 1일(토)부터 2년간이다.



류은주 동창

김수정(문정 92)·이윤정(문정 95)·박은경(문정 00)·이지영(문정 00) 동창

2월 22일(목)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협회 주최로 열린 '제56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과장 김수정 동창, 경민대학교 도서관 과장 이윤정 동창, 이화여자대학



김수정 동창

이윤정 동창

박은경 동창

이지영 동창

교 중앙도서관 차장 박은경 동창이 개인상 부문을 수상하였으며, 이지영 동창이 재직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였다.

김종숙(경제 92) 동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숙 동창이 1월 25일(목)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제353차 이사회에서 제17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김종숙 동창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종숙 동창

박효서(물리 92) 동창

변호사 박효서 동창이 법률사무소 너머(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상림빌딩 402호)를 개소하였다. 박효서 동창은 법률법인 여명과 법률법인 평안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서울변호사회 권익위원회 위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너머는 기업자문 및 송무(민·형사, 행정, 가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박효서 동창

조주연(생미 92) 동창

홈플러스 CMO 부사장 조주연 동창이 2월 1일(목)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여, 회사 운영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조주연 동창은 2016년부터 4년간 한국맥도날드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2021년 7월 홈플러스 CMO로 합류한 이후 '당당치킨', '물가안정 프로젝트' 등을 안착시키며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주연 동창

박지영(체육 93) 동창

박지영 동창이 1월 17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박지영 동창은 우리나라 아티스틱스위밍 1세대 선수 출신으로,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 국제수영연맹 아티스틱스위밍 국제심판 등 국내외 스포츠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지영 동창

최셋별(사회 93) 동창

모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최셋별 동창이 제5대 한국문화사회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최셋별 동창의 강의 <예술의 사회학적 읽기>는 이화여대 우수강좌로 채택돼 최근 무크 강좌로 개발됐고, 동명의 저서도 펴냈다. 한국문화사회학회는 사회적 삶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학자들의 뜻을 모아 2005년 창립된 학술단체이다.



최셋별 동창

태혜신(무용 93) 동창

태혜신카르마프리 무용단 예술감독 태혜신 동창이 2월 26일(월) 한우리 강남점에서 개최된 제25차 한국무용과학회 정기총회 및 시상식에서 '한국무용과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명은 「빅데이터(Big Data) 융합예술의 세계적 양상과 전망분석」이다.



태혜신 동창

이상영(섬예 94) 동창

이상영 동창은 1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열린 The Grand Art Fair에 (사)한국공예가협회 추천작가로 참여하여 룸 1132호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호텔 룸이라는 공간 안에서 섬유를 소재로 한 전통자수와 기계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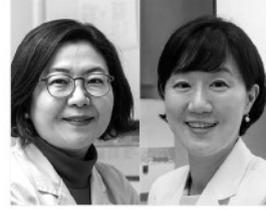


이상영 동창

벽면에만 의존하지 않고 바닥에 놓이지거나 천장에 매달아 3차원적인 표현의 확장으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였다.

한수정(의학 94)·서지현(의학 96) 동창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수정·서지현 동창이 3월 9일(토)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노인재활의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한수정·서지현 동창은 「대동맥, 관상동맥 수술 후 발생한 뇌졸중에서 재활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연구를 발표해 수상을 차지했다.



한수정 동창 서지현 동창

홍상희(생명 94) 동창

2023년 12월 19일(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서 홍상희 동창이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우수학술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은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연구자 및 기관에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홍상희 동창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책임연구원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실태와 생태계 영향과 위해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홍상희 동창

유현주(국제사무 95) 동창

1월 9일(화)부터 12일(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탐테이블 대표 유현주 동창이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탐테이블은 개인 맞춤형 영양성분을 갖춘 식품을 만들어내는 4D 푸드 프린팅 시스템인 '잉크



유현주 동창

(INK)로 상을 거머쥐었다. 2월 20일(화)에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가진 간담회에도 참여해 실생활 분야에서 AI기술 혁신을 일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지선(섬예 96) 동창

이지선(지선 리 이스바라) 동창이 미국의 명문 예술대학인 시카고예술대학(SAIC) 차기 총장에 내정되었다. 임기는 오는 7월 16일(화)부터 시작한다. SAIC 158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장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된 이지선 동창은 LA 오티스예술디자인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커리큘럼 개선, 학교의 다양성 증가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끈 5개년 플랜을 주도했다.



이지선 동창

박혜성(서양 98) 동창

2023년 12월 13일(수)부터 17일(일)까지 김포시에 위치한 CICA미술관에서 12번째 개인전 'Fall in the Light(그 빛에 빠지다)'를 개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곳, 전쟁과 혼돈으로 얼룩진 이스라엘과 어둡고 황폐한 모든 땅에 참된 평화가 오기를 소원하며 캔버스마다 새겨진 로고스의 빛을 선물하는 전시였다.



박혜성 동창

손승희(국제대학원 99) 동창

손승희 동창이 2023년 12월 슈퍼널(Supernal)의 국제 통상 규정 준수 부서(International Trade Compliance Department)의 Head로 승진하였다. 슈퍼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독립 법인이다. 손승희 동창은 2023년 5월부터 슈퍼널에서 수석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손승희 동창

이재민(장미-패션 00) 동창

쿠즈제인엠로프(대표 이재민)의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M. ROF(엠로프)'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Emerging Talents Milan'에 등용되었다. 'Emerging Talents Milan'은 세계 각국 유망 디자이너들의 유럽 진출 활로를 열어 주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엠로프의 유럽 진출 데뷔쇼는 2월 14일(수) 밀라노의 역사적인 건축물인 팔라조 비스콘티 디 모드로네(Palazzo Visconti di Modrone)에서 열려 24 F/W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재민 동창

이현주(사학 00) 동창

미국사 및 의학사를 전공한 이현주 동창이 2024년 2월 단국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현주 동창

이고운(서양 02) 동창

2023년 12월 13일(수)부터 29일(금)까지 관훈동에 위치한 통인화랑에서 12번째 초대 개인전 '달무리가 정월을 가졌다'.



이고운 동창

이경진(장미-패션 04) 동창

2023년 12월 14일(목)부터 20일(수)까지 서울시 서초구 소재 SPACE 21에서 개인전 'LEE KYUNG JIN: SHAPES'를 가졌다.



이경진 동창

이규원(장미-패션 04) 동창

2023년 5월 24일(수)부터 30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갤러리 인사1010에서 열린 (사)한국패션일러스트협회의 정기전 P·P·P (PRINT·POP·PLAY)에서 'Just Enjoy' 작품으로 2023 영아티스트 상을 수상하였다.



이규원 동창

오혜재(영문 07) 동창

1월 9일(화)부터 18일(목)까지 갤러리 한옥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오혜재 동창은 '2023 제3회 갤러리 한옥 불화·민화 공모전'에 입상한 것을 계기로 이번 전시를 마련하였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오혜재 동창은 2020년 싱가포르 아시아예술협회(AAA) 주최 '코로나19 국제 자선 그림 공모전'에서 금상을, 2021년 이탈리아 현대작가센터(COCA) 주최 '제3회 COCA 국제 공모전'에 1차 선정되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았다. 오혜재 동창은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하며, 저술가로써도 활동 중이다.



오혜재 동창

권세정(국제사무 09) 동창

권세정 동창이 1월 1일(월) 미국 에모리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권 동창은 조지아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VR과 AI 등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문의료인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권세정 동창

왕정민(생미 09)·조미정(생미 21) 동창

왕정민·조미정 동창이 아모레퍼시픽에서 진행한 '아모스프로페셔널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작업이 'iF Design Award 2024' 패키지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왕정민 동창

조미정 동창

안정신(의전원 12) 동창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인 안정신 동창이 2월 24일(토) 그랜드위커킨 서울에서 열린 대한중양외과학회 국제학술



안정신 동창

대회(SISSO 2024)에서 '최우수 구연상(Best Oral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안정신 교수는 유방암 환자에서 Ki67 발현에 미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우유리(조소 13) 동창

1월 11일(목)부터 3월 8일(금)까지 소원화랑에서 '쉬잇! 사랑이 응아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우유리 동창

김보경(조소 19) 동창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17일(일)까지 아트로직 스페이스에서 '도시의 전지적 관찰자'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보경 동창

정우주(국어교육 22) 동창

정우주 동창이 2024 경향신문 신춘문에 평론 부문에 당선되었다. 당선작 「상실의 자리로부터-천선란론」은 천선란의 소설 속에 그려진 '인간과 비인간'의 무게를 생각하는 글이다. 정우주 동창은 현재 모교 대학원 국어국문과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정우주 동창

김휘연(도예 23) 동창

김휘연 동창이 아버지 김성호 작가와 함께 2023년 12월 13일(수)부터 31일(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보다에서 '댄싱 위드 파파'전을 가졌다. 전시회 부제는 '사랑과 열정의 소나타'로 삶과 예술이 멋진 화음을 이루고 있다. 아버지 김성호 작가는 도시의 새벽 모습을 기록하는 빛의 화가로 40년 화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딸 김휘연 동창은 도자 공예 작가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경험과 기억들을 도기화에 담아냈다.



김휘연 동창

국내 최초 V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SINCE 1999

에스노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5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2024

2024년도 총동창회 사업계획안

2024. 3. 1 ~ 2025. 2. 28



19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1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3월 9일(토)
- 2 2024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4월 6일(토)
- 3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5일(목)
- 4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5월 14일(화)
- 5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황규호 사진전, 이화의 사계-이화동산을 마음에 담다'-5월 21일(화)~31일(금)
- 6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5월 31일(금)
 - 기념식-제9회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졸업 50주년(1974년 졸업), 졸업 30주년(1994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 '영원한 이화인' 추대
 - '올해의 이화인' 추대
 - 합창제
- 7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6월 예정
- 8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9월 10일(화) 예정
- 9 제10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10월 5일(토) 예정
- 10 2024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10월 24일(목)~27일(일), 북가주 지회 주최
- 11 2024 이화인의 밤-11월 25일(월)
- 12 제17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11월 25일(월)
- 13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5일(목)
- 14 정기임원회-매달 둘째주 목요일
- 15 동창회보 174호~177호 발간-3, 6, 9, 12월
- 16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 17 '올해의 이화인(이울)' 연합 모임-10월 22일(화)
- 18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회원 배가 운동-연중
- 19 후원이사 증원-연중
- 20 모교 발전기금 모금-연중
- 21 지원 사업(연중) 1)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 후원
2) 학생군사교육단 입단식 후원
- 22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 23 황화방 운영-연중
- 24 기타